



라운딩으로 맺어진 보답과 사랑

모교 교수 초청
12회 사은 골프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 여주그랜드CC에서 제12회 모교 초청 사은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모교 교수 37명을 비롯해 총 71명의 동문 선후배들이 참가해 화창한 봄날을 만끽하며 라운드를 즐겼다.

이날 골프대회를 위해 林光洙회장이 식음료 일체와 여주그랜드CC 시설을 제공했다. 金鍾燮부회장이 디지털 피아노와 기타를 경품으로 기증했으며, 鄭八道부회장이 조별 우승상품으로 쌀을 선물했다. 또 AMPFRI동창회 申一泫회장이 부상과 경품으로 숯액자와 구이용 숯판을 협찬했다.

그밖에 참석자 전원에게 姜信浩고문이 준비한 음료와 李吉女부회장이 마련한 벽시계 등을 선사했다. 또 모교 발전기금에서 기념 사진을 즉석 인쇄해 배포했다. (3면에 계속)



동창회장배 鄭哲秀교수(左)



모교 총장배 李仁子동문(左)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 여주그랜드CC에서 개최된 제12회 모교 초청 사은 골프대회 전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제7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

7월 4일 (일) 오전 9시30분 서울대 농생대 75-1동

친목과 단합의 장이 될 제7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를 오는 7월 4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0년 7월 4일(일) 09:30~17:00
- ◆장 소 : 서울대 관악캠퍼스 농생대 75-1동 3층
- ◆참가대상 : 서울대 동문, 교직원 및 재학생(단, 아마 7급 이상)
개인전 출전자는 단체전 출전 불가
- ◆진 행 : ①단체전 : 단과대·지부별 5인, 복수팀 가능
②개인전 (棋力別 64명 이내) : OB조와 YB조로 분리
- ※ 총 호선(팀 6점만 공제), 변형스위스 리그
- ◆신 청 : 2010년 6월 25일까지
서울대총동창회 홈페이지(www.snua.or.kr) 양식 참조 후
webmaster@snua.or.kr
- ◆참가비 : 없음. 당일 참가자 모두에게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 ◆시상내역 : 1천만원에 해당하는 상품
- ◆기 타 : ①프로기사 초청 기념대국 ②경품 추첨
- ◆문의사항 : 전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 ※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서울대학교

관악출추

순항하던 서울대 개교원년 찾기 노력이 의외의 '신증론' 돌출로 지연이 우려된다. 개교 원년 재조정은 무관심 속에 묻혀 있던 역사를 되찾고 校史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없는 역사를 새로 만들어 내거나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역사를 복원해 서울대의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머뭇거리거나 멈출 수 없다.

서울대 뿌리 찾기는 4년 전에 제기됐고 2년 전

부터 林光洙회장을 중심으로 총동창회가 앞장서 추진해 왔다. 서울대의 역사가 여러 단과대학의 역사보다 짧은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 1백년이 되는 올해 마무리를 지으려는 시대적 의지를 담고 있다. 또 세계 유명대학 평가에서 대학의 전통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어 개교 원년 재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이 과제를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 단과대학동창회장 등의 중지를 모으고 동창회보를 통한 지상공청회를

여는 등 동문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한편으로는 국사학자의 연구와 고증을 거쳐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인하고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학장회의를 거쳐 평의회에 올려져 있다. 전문가의 철저한 사실 확인과 하자 없는 절차를 거친 것이다. 졸속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모교 역사학과 교수들이 신증론을 들고 나왔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좀더 신중하고 엄밀하게 검토 논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 교수들도 개교 원년 재조정 연구보고서가 서울대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고 사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런데도

이견을 표시하는 것은 관점과 접근 방법의 차이나 소통의 소홀에서 빚어진 오해일 수 있다. 본질에서 멀리 벗어난 반대는 아니라고 믿고 싶다.

이견은 나쁘지 않다. 논쟁은 배격할 것만도 아니다. 서울대 재탄생의 신통이기 때문이다. 대화와 이해를 통해 서울대 정통성과 학교 역사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견은 합의를 위한 진통이다. 또 한번 서울대인이 뭉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신증함이 지나쳐 큰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金鎮銅논설위원)

개교 원년 찾기 멈출 수 없다

느리나무광장

“밖(외국)에 나가보면 애국자가 된다”고들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 느끼는 ‘애국심’은 과거 한국을 모르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외국사람들 앞에서 느끼는 ‘민족감정’이 아니라 반대로 자부심이다. 한국을 칭찬하고 한국 기업이 최고라고 추켜세우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서 내 나라가 이렇게 컸나, 한국 사람인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의 약진’ 덕분이다.

생전 처음 러시아에 가볼 기회가 있어 5월 중순 2주간 모스크바, 성 페테르스부르크, 카잔, 칼루가 등 주요 도시를 돌았다. 공항에서부터 식당, 호텔 등 가는 곳마다 만난 것이 ‘삼성’ ‘LG’ TV·컴퓨터·휴대폰이었다. 신흥 러시아 부자들의 근사한 수입차들 사이에 현대·기아자동차도 눈에 많이 띄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출장길에 주요 도시 호텔이나 거리에서 만난 게 ‘소니’ 텔레비전이요, 도요타·폭스바겐이었다. 그때마다 선진국의 저력을 새삼 느끼곤 했는데 이제 삼성과 LG, 현대차가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으

니 ‘애국심’을 넘어 ‘문화적 충격’으로까지 다가왔다.

푸틴 총리를 비롯해 메드베네프 대통령까지 배출한 러시아의 최고 명문 성 페테르스부르크대학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총장도 한국 예찬론자였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이끌어갈 인재를 배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교육이념을 밝힌 그는 “위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한국이야말로 배울 것이 많은 나라”라고 칭찬했다. 그는 “특히 어려울 때 함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무섭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러시아로서는 부러울 뿐”이라

‘한국 기업의 약진’ 덕분

許 文 明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본보 논설위원



고도 했다. 나라 안에 있을 때에는 ‘분열된 모습’에 넋더리를 낸 필자 입장에서 막상 밖의 사람들 앞에서 “한국이 뭉치고 있다”고 들으니 새삼 기운이 났다. 유서 깊은 이 학교 도서관의 컴퓨터는 LG였고 복사기는 신도리코였다.

모스크바에서 1백여km 떨어진 칼루가는 아예 한국을 롤모델로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었다. 세계 첫 상용 원전을 가동시킨 오브닌스크가 있어 과학 도시의 명성을 구가하고 있다가 사회주의의 멸망과 함께 급전직하한 칼루가는 이후 ‘살 길’을 모색하다 한국식 발전모델에서 길을 찾았다고 한다. 자원은 없으면서 교육과 인재양성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가진 나라로 우뚝 선 한국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혈안이 돼 있었다. 2008년 삼성전자 공장을 유지할 때 평균 2년 걸리는 단지 조성을 6개월 만에 해결해줄 정도로 유지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9박10일 짧게 훑어본 러시아는 비록 영광은 빛바랜지언정 제국의 풍모를 갖춘 나라였다. 땅은 넓었고 문화유산은 찬란했다. 한 때 세계를 주름잡으면서 우리 운명을 쥐락펴락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로부터 배우겠다고 나섰으니 삶이나 국가나 흥망성쇠라는 사이클을 거부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우리도 지금 잘 나가간다고 우쭐할 일이 아니라 생각에 자부심 한 톨에 무거운 책임감도 들었던 러시아 방문이었다.

관악시단

목 록

朴 魯 東(농화학70-77)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장·시인

재미를 데리고 산책할 때다.
앞서던 재미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맹렬한 눈빛으로 앞을 주시하였다.
저쪽 풀 섬에 강아지 한 마리가
이곳을 노려보고 있었다.
재미는 적을 향해 몸을 낮추고
아가리에 거품을 물고
으르렁거리며 천천히 다가섰다.
드디어 물고 늘어져 먹을 딸 만한 간격으로 가까워졌다.
숨을 멈추고 이들의 전투를 응원할 때,
소름이 등골을 가르는가 싶더니,
피비린내가 진동하였다.
그런데 웬일인가.
둘은 한바탕 물어뜯을 생각은 벌써 잊어버리고
서로 코를 몇 번 비비더니 돌아서고 마는 것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재미에게
난 싱거운 늑! 하고 불평하였지만,
전너편 주인과는 공손히 목례를 하고 헤어졌다.

동문칼럼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회와 국가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적임을 새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천안함 폭침사태는 60년 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던 한국전쟁이란 역사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극적으로 일깨워줬다. 이제 우리는 역사와 현실을 외면하거나 그로부터 도피하려는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민족적 과제와 국민적 의무를 되새겨봐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금년은 우연히도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강제합방을 당한 경술국치 1백주년을 비롯해 6·25전쟁 60주년, 4·19 50주년, 5·18 30주년 등 뜻깊은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우리가 국가발전에 매진하는 동안 뇌리에서 잠시 잊혀졌던 6·25전쟁, 한반도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며 최대의 희생자를 낸 참변이었던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0

주년을 자축하는 지금이야말로 국격에 맞는 보훈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고 오래 동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우수한 대학에서는 예외 없이 조국을 위해 전사한 동문들의 이름을 동판 혹은 비석에 새겨 추모하는 것을 보게 된다. 서울대에서도 6·25 60주년을 맞는 이 기회에 재학 중 혹은 졸업생으로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동문을 기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떨지.



李 洪 九
(법학53입)
前국무총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둘째, 우리를 돕기 위해 유엔의 깃발아래 참전했던 21개 우방의 장병과 국민들에게 한국인의 영원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우방국의 참전인원은 총 1백90여 만명이며 전사자는 4만여 명, 부상자는 10만여 명에 이른다. 60년이 흐른 지금 ‘의리의 나라’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받은 큰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의미의 고마움을 표시하려 애쓰고 있다. 6·25 당일 참전국 주요 일간지에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국민은 당신들의 공헌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습니다’라는 전면광고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내보낼 예정이다. 한편, 생존하고 있는 참전용사 2천여

6·25전쟁 60주년과 역사의 교훈

주년을 맞았다는 것은 마땅히 국가적인 행사로 기념할 만한 일이다. 작년 11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발족시킨 ‘6·25전쟁기념사업위원회’는 행사의 일환으로 6·25 60주년기념사업의 초점을 다음 세 항목으로 설정해 진행하고 있으며 鄭雲燦국무총리와 필자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첫째, 우리는 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장병들의 공훈은 물론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장병들이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힘써 나갈 것이다. 지난 60년 나라형편이 어려워 그와 같은 예우를 제대로 못했다면 선진국

명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만나 추억과 우정을 나누는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셋째, 6·25 60주년이 계기가 돼 나라와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재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국가와 공동체수호를 위해 응분의 희생도 각오하겠다는 마음을 새로 다져야 하겠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으로 나라에 공헌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朴 薦 壽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전화(02)702-2233 팩스(02)886-2218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장학빌딩 건립기금

高恩禧동문 2천만원
1천만원 출연도 계속

5월 31일까지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高恩禧(생물교육53-58)동문이 2천만원을 쾌척했으며, 미미월드 李寅圭(지구과학교육59-65)대표가 1천10만원, 趙源煥(AMPP 6기)양주조씨대종회장이 1천만원을 출연했다.

기금을 출연한 동문은 개인이 원하는 명의의 '기금장학회'를 설립하게 되며, 장학빌딩 건립 후 발생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제12회 모교 초청 사은 골프대회 성황

鄭哲秀교수·李仁子동문 우승

金夏奭부총장 등 교수 37명 참가... 동창회 임원과 결속다져



메달리스트 金鍾燮동문(右)



남자 롱게스트 徐一源교수(左)



여자 롱게스트 崔스미교수(左)

(1면에 이어)

골프경기 후 클럽하우스에서 가진 시상식 및 기념 만찬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은 “최근 모교가 아시아대학 종합평가에서 6위에 오르고 발전기금도 3천억원 모금목표를 초과 달성한데 대해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결과는 李長茂총장과 교직원들이 함께 불철주야 노력하신 결과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을 대신해 참석한 金夏奭특임부총장은 “오늘 모임을 계기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모교 법인화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본회 金在淳명예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교수님들이 총명한 후배 재학생들에게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음을 늘 주지시켜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동문들은 모교와 대한민국에 무한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경기 발표 결과(신페리



남자 니어리스트 金在淳동문(右)



여자 니어리스트 朴賢愛교수(左)

오방식 적용) 교수 가운데는 체육교육과 鄭哲秀(체육교육68-72)교수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동창회장배’를 수상했으며 동문 중에서는 서경대 李仁子(가정교육55-59)석좌교수가 우승해 ‘모교 총장배’를 받았다. 메달리스트 상은 74타를 기록한 삼익악기 金鍾燮(사회사업66-70)회장에게 돌아갔다.

롱게스트상 남자부문은 모교 건설환경공학부 徐一源(토목공학77-81·2백20m)교수, 여자부문은 간호학과 崔스미(간호76-80·2백40m)교수가 받았으며, 니어리스트상 남자부문은 金在淳(경제47-52·5m)명예회장, 여자부문은 간호대 朴賢愛(간호76-80·4.4m)

부학장이 수상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경품 추첨에서 金鍾燮부회장이 협찬한 디지털 피아노는 본보 논설위원인 내일신문 金鎮銅(국문58-64)논설고문이 당첨됐다. (南)

〈조별 우승자 명단〉

▲OUT코스

1조: 경원대 李吉女총장, 2조: 관악언론인회 李炯均명예회장, 3조: 명동안과 金在浩원장, 4조: 세일종합기술공사 黃鎬鎰회장, 5조: 보건대학원 鄭效志부원장, 6조: 전국골프연합회 朴榮敏회장, 7조: 간호학과 朴誠愛교수,

삼익악기 金鍾燮회장 20억원 쾌척



朴浩田·金鍾燮·林光洙·孫一根·洪性대동문

지난 5월 6일 삼익악기·스펙코 金鍾燮(사회사업66-70 본회 부회장·ROTC동문회장)회장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약정, 앞으로 ‘金鍾燮특지장학회’ 명의로 총 20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게 됐다.

金동문은 “환갑이 된 2006년부터 가슴속에 접어뒀던 처음의 꿈인 ‘기부와 사회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모교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빌딩 건립기금 10억원을 약정하고, 작년에 모두 출연했다”며 “올해 말 완공예정인 장학빌딩이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추가로 1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9년 모교 발전기금으로

20억원을 쾌척한 바 있는 金동문은 최근 아이티에 고아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중 해외봉사 NGO인 코피온의 3대 회장에 취임했다.

金동문은 “코피온은 젊은 시절 봉사활동을 하면서부터 가졌던 평생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대가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제3세계 가난한 나라의 인재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金동문은 1979년부터 건설장비 플랜트와 환경설비 전문업체인 스펙코를 운영하면서 2002년 독일의 세계적 피아노 업체인 벅스타인과 삼익악기를 인수해 M&A에 대한 남다른 안목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 3위 악기기업으로 성장시켰다.

8조: 나노카보나 申一汕대표, 9조: 약학과 千文字명예교수

▲IN코스

1조: 金夏奭특임부총장, 2조: 李禮植 前극동제약 명예회장, 3조: 金秉麟 前삼안 고문, 4조: 전기공학부 朴鍾根교수, 5조: 중앙일보 金鎮國논설위원, 6조: 예일컨설팅그룹 朴英俊회장, 7조: 한국광고주협회 金貳煥상근부회장, 8조: 전기공학부 李旻武교수, 9조: 의대 申熙泳교무부학장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姜信浩교문: 드링크제
- 林光洙회장: 골프장 사용 및 식음료 일체
- 李吉女부회장: 벽시계 1백20개
- 金鍾燮부회장: 디지털 피아노 1대, 기타 3대
- 鄭八道부회장: 쌀(7kg) 18포
- 申一汕 AMPFRI동창회장: 솥액자 3점, 구이용 솥판 12개

자연대학동창회

재건총회서 金靑弼회장 선임

자연과학대학동창회(회장 朴鍾世)는 지난 5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재건총회를 열고 동국대 金靑弼(동물63-67)석좌교수(사진)를 제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金靑弼회장은 동물·분자생물학과동창회장으로 활동하며 자연대

동창회 재건을 주도했다. 자연과학대학동창회는 1994년 창립돼 활발한 모임을 이어 오다가 2002년 회원명부 발간 이후 활동이 저조했다.

이날 모임은 수리과학부동창회(회장 李尙錫), 통계학과동창회(회장 洪晩杓), 물리학과동창회



(회장 金聖中), 천문학과동창회(회장 金永哲), 화학부동창회(회

장 金路中), 동물·분자생물학과동창회(회장 金靑弼), 미생물학과동창회(회장 金斗鉉), 대기학과동창회(회장 洪原熹), 지구환경과학부동창회(회장 李晟錄), 해양학과동창회(회장 方仁權)가 연합해 이뤄졌다.

각 과별 동창회는 총회 전 행사로 오후 1시부터 ‘자녀교육과 대학 진학 특강’, ‘명예교수와 등산’, ‘추억의 망원경’, ‘봄 등산대회’, ‘동문과 만남의 시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AMP동창회

金光石회장 재선출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光石)는 지난 5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정기총회 및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金光石(38기)회장을 재선출했다. 화장품 회사인 참존을 경영하고 있는 김회장은 2006년 동창회장에 선출돼 이번이 3선째다.

관악언론인회

각 언론사 신입기자 환영회 열어

관악언론인회(회장 文昌克)는 지난 5월 19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제2회 신입기자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올해 언론사에 입사한 신입기자를 비롯해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관악언론인회 安秉勳·李炯均 명예회장, 文昌克회장, 安國正·徐玉植감사, 朴聖姬이사, 金鎭國부간

사장, 모교 朱鍾南기획처장, 각 언론사 간사 등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文昌克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대 출신들이 맹수를 닮아 홀로 생활하는 습성은 언론인으로서 장점이지만 동문끼리도 서로 몰라서 잡아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동문이라는 공통점을 통해서 서로 가깝게 지내고 언론계 발전



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자”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언론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관악언론인회의 가장 패기 있

고 든든한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의 능력과 젊은 감각으로 각종 현안과 모교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공식행사 후 매일경제신문 蔡耕玉(경영 86-90) 뉴스속보부장이

나와 ‘기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후배들에게 기자로서의 삶에 대해 강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蔡동문은 “기자로 활동하며 특별한 취재원, 정보를 얻기 위해 네트워크 허브가 중요한데 관인회는 꽤 괜찮은 허브 가운데 하나”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네트워크 허브가 기자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또 “기자도 평범한 월급쟁이에 불과해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자신있는 주제에 관해서 꼭 책을 써라”는 등 주옥같은 조언들을 들려줬다.

미주 동문들과 함께해요

미주동창회

10월 8일 크루즈여행

미주동창회(회장 宋舜英)는 미주와 캐나다를 비롯해 국내 동문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중해 연안 크루즈 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8일 미국을 출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후 크루즈에 승선, 몬테카를로-피렌체-로마-나폴리-팔마섬을 거쳐 10월 17일 미국에 도착하는 9박10일 일정으로 기획됐다. 가격은 인사이드룸(1천7백30달러)~발코니룸(2천2백90달러)에 이르기까지 5가지 패키지(항공료 별도)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9만3천톤급 Norwegian Jade호를 타고 지중해 연안 지역을 관광하게 되며, 전문안내원이 동행하고 기항지마다 전용버스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宋舜英회장은 “동창회의 목적은 모교 발전에 기여하고 동문간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이번 크루즈 여행을 통해 많은 동문이 단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국 동문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예약마감은 6월 30일까지이며, 미주동창회 (847-441-0011 / snuaahq@gmail.com) 또는 샤프

여행사 (847-759-8813 / sharptour@hot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남가주지부동창회

7월 9일 합창단 공연

남가주지부동창회(회장 金殷宗)는 오는 7월 9일 미국 LA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제5회 합창단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비롯한 구에 익은 애창곡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부르며, 세계적인 테너 신동원 씨가 특별 초청돼 ‘Nessun Dorma’, ‘여자의 마음’ 등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의 수익금은 대지진으로 폐허가 돼 가족을 잃은 고아와 불우한 아이들에게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특수학교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213-380-1600〉

전북지부동창회

춘계 음악회 개최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지난 5월 3일 전주 시내 ‘소리’에서 학교법인 상산학원 洪性大(수학57-63 본회 부회장)이사장, 崔世英(법학60-64)변호사, 전주시 安世景(농업교육76-80)부시장 등 50여 명의 동문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춘계 음악회를 가졌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오병이어의 고향-2010A’, mixed media on canvas, 53×46cm, 2010.

李正洙作

〈작가약력〉

- ▲58~64년 모교 회화와 졸업
- ▲국전 특선, 개인전 5회
- ▲80년 인도 트리엔날레전
- ▲83~92년 현대미술 초대작가전
- ▲8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국제전
- ▲03년 한국미대 교수 1백대 작가초대전
- ▲강원대 시민대학 평생교육원장 역임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상 수상
- ▲前강원대 미술학과 교수

AMPFRI동창회

12기 동기회 골프 우승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申一汕)는 지난 5월 10일 경기도 용인시 88CC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과 모교 보건대학원 李承旭교수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경기결과 12기 동기회가 단체우승을 차지했으며 3기 동기회가 2위에 올랐다. 개인 우승은 일흥

자동기계 이연교(23기)대표, 준우승은 포오리 이충호(23기)대표에게 돌아갔다. 여성부 우승은 유스 유영숙(26기)대표가 차지했다.

ROTC동창회

故 李鍾範배 골프대회

ROTC동문회(회장 金鍾燮)는 지난 5월 1일 경기도 여주그랜드CC에서 제7회 故 李鍾範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 결과(신페리오방식 적용)는 다음과 같다.

▲우승: 林炳星동문 70타 ▲메달리스트: 趙顯益동문 76타 ▲준우승: 崔翔五(금속공학63-67)동문 72타 ▲통계스트: 宋宇燁(체육교육79-83)동문 2백50m ▲니어리스트: 洪宗浩(사회62-66)동문 1.3m ▲다버디상: 崔海元(원예70-74)동문 2개 ▲다과상: 吳世煥(무역68-72)동문 13개 ▲다보기상: 金正範동문 14개 ▲행운상: 李碩炯(기계공학70-74)·金武洙(농생물76-80)동문 ▲최다참가상: 29기 동기회 ▲경품 대상: 孔鍾敏(불문81-85)동문 (南)

법과대학동창회

법대인 선정·金慶漢회장 선임

법과대학동창회(회장 金正國)는 지난 5월 27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孫一根고문, 丁海昌전임 회장, 金正國회장, 모교 鄭宗燮학장 등 2백5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8회 '자랑스러운 서울 법대인'으로 모교 朴秉濠(법학50

-55) 명예교수, 李時潤(법학54-58)前감사원장, 權 誠(법학60-66)언론중재위원장, 千璣興(행정62-66)前대한변호사협회장을 현창했다. 이어 傘壽와 古稀를 맞이한 8회, 18회 동문들에게 축수패를 증정하고 신입회원 1백63명을 대표해 安漢烈(법학99-10)동문



金建植·李時潤·金慶漢·金正國·權 誠·千璣興·鄭宗燮동문

에게 환영의 꽃다발을 선사했다. 축하 행사에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金慶漢(행정

62-66)前법무부 장관을 선출했으며, 감사에 李康隆(법학62-66)前신한은행 부행장과 만성국제특

허법률사무소 黃義萬(법학70-74)대표를 선임했다. 신임 金慶漢회장은 1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0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을 거쳐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법무부 차관, 서울고검 검사장,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KH법률연구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동창회는 올해 회보 발간, 친목 행사, 모교 지원, 조직관리 등의 비용으로 4억6천3백여 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사범대학동창회

淸冠대상 시상·卞柱仙회장 재임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5월 2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신세계홀에서 제2회 청관대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鄭元植고문,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金商俊 前서울시교육감, 李相周 前부총리, 李元熙 前한국교총 회장, 모교 金鍾旭학장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2만6천여 동문들께서 활약하는 사대동창회는 그동안 국가 운영의 동량지재를 많이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모범적이고도 수준 높은 동창회”라며 “오늘 청관대상을 수상한 동문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卞회장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관대상 시상식에서 사도상 부문에 崔泰祥(역사교육53-57)前경북고 교장, 학술상 부문에 모교



앞줄 孫一根·崔泰祥·林光洙·鄭元植·卞柱仙·李相周동문, 뒷줄 李琦錫·金鍾旭·崔秉鎬·朴東烈·金商俊동문

지리교육과 李琦錫(지리교육59-63) 명예교수, 공로상 부문에 전재교육 崔容準(수학교육61-65)회장이 선정돼 상패와 수금메달을

받았다. 이어 동창회관 건립기금에 거액을 출연한 朴東烈(화학교육57졸)·崔秉鎬(화학교육57-61)동문

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창회는 총회 결산보고에서 회관 건립기금 등 총 31억8천5백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卞柱仙회장을 재선출했다. 卞회장은 “회관 건립을 마무리 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卞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청관대상 제정, 홈페이지데이 개최, 홈페이지 개편, 회보 증간 등을 펼쳐왔다. 한편 종전 회계연도(5월 1일~4월 30일)를 1월 1일~12월 31일로 개정했으며 이에 맞춰 정기총회도 3월 전에 열기로 했다.

만평

李元馥



상과대학동창회

11회 산행대회 가제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燦)는 지난 5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제11회 산행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다 참가기수인 58학번(16회)동기회를 비롯해 동문 가족 8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를 위해 池昌壽(상학55-59)·李竣鎔(경제56-60)·金千式(무역58-64)·曹甲周(경제58-63)·朴容晟(경제59-65)·裴正運(경제59-63)·吳秀吉(상학63-67)·金東寧(경제64-68)·金一燮(경영64-69)·沈載奭(상학64-68)·李仁遠(상학64-68)·成耆鶴(무역66-70)·金承勳(상학68-72)·張矢遠(경제70-74)·黃健豪(경영70-74)·申政勳(경영90-94)동문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농생대동창회

鄭潤煥회장 취임·상록인상 시상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韓仁圭)는 지난 5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에서 동문 가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록의 날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상록인 명예의 전당 헌정식, 제8회 상록인 대상 시상식, 정기총회, 76학번 졸업 30주년 기념 사은회, 축하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 75-1동 2층에서 거행된 명예의 전당 헌정식에서 朴道秉(수원고농40졸)·金鍾天(농학53-57)·曹章煥(농학53-60)·鄭址雄(교육행정58-62)동문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명예의 전당에는 1백92명의 헌정자 동관이 부착됐다. 이어진 상록인 대상 시상식에서 모교 鄭昌柱(농공학53-57) 명예교수, 오경농장 金重經(농경제54-58)대표, 일성화학 鄭潤煥(임학56-62)대표, 李銀鍾(농생물59-63)前농촌진흥청장, 셀트리온 李賢秀(농화학60-64)상임고문, 카길 애그리 퓨리나 金基鎬(축산64-68)대표, 모교 河鍾圭(대학원77졸)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를 받았다. 또 동창회를 위해 수고한 俞東濬(잠사56-60)·李燦鎬(동물자원84-91)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

으며, 76학번 동기회가 상록문화재단에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이어 모교 농생대 朴憲雨학장이 지난 4년간 동창회를 이끌어온 韓仁圭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鄭潤煥동문이 새 회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鄭회장은 지난 임원회의에서 제8대 회장으로 선출돼 이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인터뷰 6면 참조〉 이날 행사를 위해 金重經·朴憲雨(농생물73-77)·金在浩(농생물75-80)·金啓源(농화학76-80)·金成麟(축산77-82)·趙在九(산림자원83-90)동문 등이 경품을 협찬했다.

AIC동창회

柳仁村장관 초청 강연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世漢)는 지난 5월 6일 서울 소공동 조선포털 오키드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柳仁村장관을 연사로 초청해 ‘창조시대 문화정책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李世漢회장, 吳然天 모교 25대 총장 후보, 행정대학원 崔鍾元원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南〉

6월

행사 캘린더

6월 15일(화) 오전 7시

• AMPFRI동창회 조찬세미나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
(문의 : 742-8863)

6월 17일(목) 오후 6시30분

• 경대원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
(문의 : 3219-3360)

6월 17일(목) 오후 6시30분

• 관악언론인회 여기자모임

서울 한국언론재단 매화홀
(문의 : 702-2233)

6월 18일(금) 오후 4시30분

• 법대문우회 창립모임

모교 관악캠퍼스 법과대학
(문의 : 735-3614)

6월 20일(일) 오전 9시

• 의대동창회 골프대회

인천그랜드CC
(문의 : 740-8183)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농생대동창회 鄭潤煥회장
(일성화학 대표)



일성화학 鄭潤煥(임학56-62 본회 부회장)대표가 지난 5월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장으로 선출됐다. 鄭회장은 지난 7년간 입학동문회장을 맡아 장학금 확대, 등산·골프 동호회 창립, 백년사 발간, 식목행사 정례화 등 동문회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생대동창회 상록문화재단 설립을 주도해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제8대 회장에 취임한 鄭회장을 서울 양재동동창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 준비된 회장으로 불리는데.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도 조직해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죠.”

－ 기부를 많이 하셨는데.

“농생대 개교 1백주년 기념행사 때 감사패를 받고 수입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1999년부터 일성장학금을 통해 60여 명의 임학과 후배들과 인연을 맺고 있고 총동창회 장학발당 건립기금,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상록

“장학기금 확충·조직 강화에 역점”

전임 회장들께서 쌓아놓은 토대 위에 벅대한 장 더 없다는 마음으로 2년 임기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1948년에 창립돼 현재 2만8천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소가 과악대 회보를 받아 보시는 분이 1만3천3백명 정도 되고요. 연중 큰 모임으로는 신년교례회와 상록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해 6억원 규모의 상록문화재단을 설립해 장학 사업도 규모있게 펼치고 있습니다.”

－ 활성화 계획이라면.

“재단 규모를 더욱 키우고 조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 광주, 마산, 진주, 수원, 인천, 천안, 강릉 등 여러 지역에 지부동창회가 결성돼 있는데 가능하면 모두 방문하려고요. 지부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동창회도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밖에 등산·골프 동호회

문화재단에 각각 1억원씩 출연했죠. 힘닿는대로 열심히 돕고 살 생각입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몇 명이 거액을 내서 운영되는 단체보다 적은 돈이라도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한 조직이 탄탄하더군요. 참여가 봉사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모임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1936년 서울 출생인 鄭회장은 양정중과 수원농림고를 거쳐 모교에 입학했다. 졸업 후 삼양사에 입사해 8년간 근무했으며 1978년 일성화학을 창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성화학은 도금약품 및 폐수처리제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2008년 무역의 날 ‘3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인천보육원후원회장, 인천자율환경연합회장으로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에이지 슈트(age shoot)를 10번 기록했을 정도로 뛰어난 골프 실력을 자랑한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대학원동창회 李文漢회장
(모교 수의학과 교수)

로 대학원 전공 단위별로 동창회를 조직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농생대에 대학원 동창회가 조직돼 잘 운영되고 있고 수의대, 간호대도 곧 만들어 질겁니다.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동창회 조직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 기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신입회원 입회비가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억원 정도 있어 그 운용 수입으로 매년 4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죠. 욕심이긴 한데 5억원 수준으로 올려 보려고요.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도 하고 우수 졸업생 포상도 하면서 기금 참여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회보 중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금 5억 조성·전공별 조직도 장려”

구실에서 만났다.

－ 소감 한 말씀.

“우선 전임 河斗鳳회장님과 金圭植명예회장님의 동창회에 대한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책임의 막중함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지만 전임 회장님들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현재 9만5천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여 명의 부회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3백명 내외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업과 운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합니다. 사무총장으로 모교 수의학과 申南植(대학원93-98)교수가 수고하고 있고요. 주된 사업은 장학금 지원, 신입회원 환영식, 회보 발간 등입니다.”

－ 중점 추진 사업이라면.

“기틀을 마련하는 게 제 임무 같아요. 우선 회원 명부를 재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동창회 주소를 갱신하는 일에 모교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해요. 전공별 대학원 동창회 구성은 학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경남 진주 출신인 李회장은 진주고등학교를 나와 모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수의생화학 중 식품위생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했으며 모교 수의과대학장을 비롯해 한국수의정책포럼 상임위원장, 농식품부 축산물위생심의위원장,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대한수의사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테니스, 등산을 즐기며 가족 중 큰형 故 李正漢(농경제53-57)前경상대 총장, 장녀 고려대 이예영(의류93-97)교수, 차남 현대자동차 李東勳(기계항공99-03)연구원이 동문이다. 李회장은 최근 본회 장학발당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출연한 바 있다. (南)

화제의 동문

金雄漢 모교 의대 흉부외과 교수

10년째 중국 등 해외서 仁術 펼쳐

모교의대 흉부외과학교실 金雄漢(의학 81-87)교수는 소아 심장수술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사람으로 손꼽힌다. 특히 선천성 심장병 중 가장 심한 기형인 반쪽짜리 심장도 살려내는 폰탄수술법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7월에는 체중 2.8kg인 선천성 심장병 신생아의 무수혈 수술에 성공해 화제를 모았다.

이런 그가 10년째 중국과 몽골 등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해 온 것이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소아 심장병 수술의 권위자

지난 5월 24일 취재자 모교 연건캠퍼스 연구실에 갔을 때 金교수는 막 수술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다. 파란 수술복 안에 마스크도 여전히 목에 매단 채 조금은 피곤한 모습이었다. 일주일여 몇 건이나 집도하나는 질문에 “대중없어요. 한 4건에서 7건 정도?” 조금은 무뎠직한 경상도 억양의 답변이 돌아왔다. 경북 안동 출신이란다. 의대에 들어간 동기도 솔직하다.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의대 가기를 원했어요. 막상 들어와 보니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이 많았어요.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무척 혼란스러운 때였죠. 좋아하는 선배들 따라 흉부외과에 들어가 실습하다 보니 그때서야 적응이 되더군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金교수는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신학을 택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해외 의료 봉사활동도 신앙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金교수는 주일마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 단체인 ‘라파엘 클리닉’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라파엘 클리닉은 1997년 모교 의대 가톨릭교수회와 가톨릭학생회가 뜻을 모아 문을 연 단체다. 모교 金有瑩·金典·安圭

里·金有瑩·趙相憲·張仁鎭·高在晟·張允碩 교수 등이 주요 멤버로 봉사하고 있다.

“해화동과 동두천에 진료소가 있어요. 이 곳에서 심장병에 걸린 한 필리핀 노동자 부부의 아기 수술을 부탁 받으면서 직접적인 인연을 맺었죠. 의료봉사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외 의료봉사도 하게 됐어요.”

부천 세종병원에서 근무할 때 중국 하얼빈 어린이병원과 맺은 인연을 모교병원으로 와서도 이어가고 있다. 한 후원단체의 행사로 시작된 하얼빈 어린이병원 지원은 단기 행사로 끝났지만 金교수는 개인적으로 틈날 때마다 휴가를 내서 그 곳 의사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수술했다. 그동안 金교수에게 수술 받은 해외 어린이 환자만 1백여 명에 이른다. 모교로 부임해서는 공공사업단에 도움을 요청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얼빈 어린이병원과 교류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월에는 그 곳 의사 5명을 데려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명을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고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공공의료사업단은 국내 저소득 가정 지원을 비롯해 매년 한 두 차례 정도 해외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金교수도 해외 봉사활동이 있을 때마다 참여해 지난해에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등 저개발 국가의 심장병 어린이를 고쳐줬다.

金교수는 “서울대병원이 저개발 국가에 좀더 근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플랜’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플랜은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 미국의 미네소타 플랜에 의해 의료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것을 저개발 국가에 되갚자는 취지에서 구상 중인 사업이다. 즉 저개발 국가 주



민들을 치료하는데 머물지 말고 그 쪽 의료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의료 기술을 전하자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우리의 의료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해외 의료봉사를 나갈 때마다 의료기술을 전수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아요. 이게 곧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 진행된다고 하니 참 기쁜 일이지요. 우리나라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도 큰 역할을 할거라 믿어요.”

저개발 국가에 의료기술 전수

金교수는 흉부외과 의사로서 좋은 점이 수술 후 건강해진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만성 질병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반면 심장병은 수술 후 건강해진 모습을 금방 볼 수 있어 만족감이 큼니다. 그래서 한 아이라도 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1년에 그가 수술하는 심장병 아이들은 2~3백명 정도. 소아 심장 흉부외과의가 된 특별한 동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 아이들을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다소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아이들과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40대 후반이 되니까 아이들을 맡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수술 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金교수가 수술한 가장 어린 생명은 1.

2kg 미숙아다. 심장에 직접 손대지 않는 동맥간개존증의 경우 6백g 미만의 미숙아까지도 해봤단다. 심장이 풍만해 확대경을 보고해야 하는 수술이다. 손 기술이 섬세하지 못하면 어렵다.

손 기술이 뛰어나니 그림에 소질이 있거나 잘 다루는 악기가 있지 않을까? 金교수는 그런 취미는 없고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등산이란다. 학부 시절부터 산악회원으로 활동해 지금은 모교 교수산악회 일원으로 등산을 즐기고 있다. 재작년에는 서울대병원 간, 콩팥 이식 환우 및 공여자들과 히말라야를 등반하기도 했다. 金교수는 “당시 6천1백89m 높이의 아이일랜드 피크를 올랐는데 내 생애 가장 높은 산”이었다고 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金교수가 들려준 이야기가 자못 심각하다.

“지난 주 교수산악회 모임에 나갔는데 한 자연대 교수님이 ‘요즘 공대뿐 아니라 자연대 우수 졸업생들이 의과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걱정하시더군요. 동감합니다. 의대는 천재적인 사람이 필요한 곳은 아니거든요.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리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金교수는 경북고등학교 졸업 후 모교에 입학해 盧浚亮명예교수, 金容珍교수 등의 지도를 받았다. 의대 졸업 후에는 부천 세종병원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3년 모교로 부임했다. 매주 한 두시간 강의를 하는데 아직도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고. 30대 중반에 결혼해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가 있다. 〈南〉

37년간 외무부·통일부·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약

동문을 찾아서

李相禹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천안함 폭침 사건은 나라를 뒤흔들었다.李明博대통령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직후 대북제재를 선언했다. 북한은 전면전을 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해이해진 대북 경각심을 다시 일깨웠다.

북한의 전면전 압력으로 한반도에 긴장의 파고가 높다. 이런 때 국방개혁과 북한문제 등 안보 전반을 총괄 점검하고 있는 李相禹(행정57-61)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겸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5월 24일 만났다.

그에게 북한 金正日の 속내와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들어 보았다. 또 정부는 어떤 각오와 대응 태세를 다져야할지도 점검했다. 북한 제재가 실효를 발휘하려면 어떤 자세로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할지도 물었다.



대담 : 본보 崔英勳논설위원(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 지금 나라 안팎이 정말 복잡합니다.

“울 것이 한 번 왔으니 잘 견디고 잘 견 나가면 됩니다. 얼마 전 해군에서 강연할 때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희생당한 분들은 정말 안됐지만, 국민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지 못하면 오히려 그 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국방개혁에 힘을 쏟으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金正日위원장이 오만한 것 같습니다. 6·25전쟁을 일으킨 金日成 前수상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남조선노동당을 조직한 당시 북한 내각 부수상이었던 朴憲永이 ‘한국사회는 남로당이 장악했으니, 전방에서 일을 한 번 터뜨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화통일이)될 것’이라고 金日成수상에게 보고하다 보니 그대로 믿었던 거죠. 막상 전쟁을 일으켰는데, 남한에서 기대와 같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압록강까지 후퇴하게 된 金日成수상은 그제야 ‘속았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이번에도 金正日위원장이 똑같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하면서 북한은 대남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전까지는 군사력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했지만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이 안 되니 전략조점을 군사전에서 정치전으로 바꿔 대남 침투공작을 시작한 겁니다.”

— 정치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80년대 운동권에선 포섭한 학생들을 가두투쟁요원과 사상투쟁요원으로 나눴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포섭해 사투요원으로 만들고, 데모도 시키지 않았어요. 이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언론사와 대학원에 많이 보냈죠. 대학원을 졸업하고 소위 좌경화된 교수들이 다시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새 추종자들을 조직적으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20년 정도가 흘렀으니, ‘이제는 뭔가 좀 되겠다’ 싶어 한 번 시험해본 거죠. 지난해 광주병 사건 때 일어난 촛불시위가 그중 하나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직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신감을 조금 얻으니까 이번에는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자기네(친북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나서 말하면 한국정부가 북한에 강경 대응을 못할 것이라고 계산한 거죠. 그러나 우리 상황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강경하게 나가니까 북한이 당황한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조바심을 내지 말고 의연한 태도로 행동하면 북한도 분명히 다시 생각할 겁니다.”

李의장은 인터뷰 시작 전 이런 민감한 사안보다는 개인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인터뷰는 심각한 얘기들로 이어졌다. 지난 37년간 외무부, 통일부,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방개혁을 3차례나 이끈 그로서는 ‘평화질서’를 위해 북한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북한을 또 어떻게 포용해야하는지에

• 李相禹의장은

△1938년 함남 함흥 출생 △1957년 서울고 졸업 △1961년 모교 행정학과 졸업 △1966년 모교 법학 석사 △1971년 하와이대 정치학 박사 △1976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84년 국민훈장 목련장 △1994년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이사장 △1995년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 △1996~2010년 본회 16~22대 부회장 △1997년 통일부 통일고문회의 고문 △1999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 △2000년 자랑스러운 올해의 서울인상 △2003년 한림대 총장 △2006년 신아시아연구소 소장 △2008년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2009년 대통령자문 통일고문회의 고문 △2009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2010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2010년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 점검회의 의장

천안함사건은 金正日の 오판에서 비롯

“강도 높은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왔다. 국방선진화위원회는 국방개혁안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국방, 통일, 외교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죠. 중국은 덩샤오핑 집권 후 1978년 개혁개방을 단행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중국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그때 개혁개방을 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북한은 조직력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을 것이고 지금쯤은 북한 주도로 통일국면을 맞는 상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정치전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계속 늦추다보니 이제는 북한이 방향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동안 국방정책의 기초가 북한이 한반도의 안정을 주도하는 전수 방어체제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안정을 주도하는 억지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우리의 대응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지 않도록 모든 영역에서 압박하면 북한도 결국 굴복할 것입니다.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이라는 孫子の 말이 있습니다. 방어정책은 싸워서 막는 것이지만, 억지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억지전략이라고 하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고 그러는데, 방어는 상대방이 쳐들어온 것을 열심히 싸워 지키는 것밖에는 안 되지만 억지는 그쪽에서 도발을 하면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 필요할 때 이를 쓸 의지가 있다고 천명해 처음부터 상대방이 도발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를 때렸다가 놔뒀다가, 또 필요하면 다시 때리는 것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통일의 전제조건은 한반도의 안정인데 그 안정을 북한이 이끌어가고 우리가 쫓아가선 안 되죠. 북한 주민은 적이 아니라 우리 동포인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억지전략으로 통일정책을 주도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우리 손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통일로 이끌어 나가야죠.”

— 현재의 대북제재 상황에 남북은 서로 손해를 봅니다.

“얼마 전 통일연구원에서 이번 제재조치로 우리는 경제의 0.1%, 북한은 14%가 교역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조금만 참고 대처해주면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군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북한과의 전쟁을 배제하라는 지침을 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군이 안이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지침을 내리면 군도 금방 고칠 것입니다.”

—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유연한 부대체제로 개편돼야할 것 같습니다만….

“유연성과 전문성의 조화가 합동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령체제 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진화위원회에서는 제4세대 戰場환경에 맞는 지휘체계를 연구 중입니다. 현재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시각과 국가 차원의 시각으로 조정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국방예산도 우리가 더 많지만 정신전력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린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친북세력의 효과입니다. 북한 선전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로 설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만 하면 생각이 금방 바뀔 겁니다.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어느 젊은 교수가 말하기를 ‘우리 언론에서 이북에 대한 자료화면을 방송에 내보낼 때마다 북한의 연출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북한 선전을 해주는 셈이죠.

그래서 이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북한 뉴스를 여과 없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북 뉴스는 어느 한 대목만 보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남북 축구경기에서 북한이 남한에게 0대 2로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북에서는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뉴스 마지막 부분에 북한이 진 이유가 남조선 사람들이 북한의 몇몇 선수들에게 독약을 먹여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끝냈거든요. 우리는 앞부분만 봤으니 모르잖아요. 끝까지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바로 느끼게 되니 이것 이상의 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 남남갈등은 꼭 좌익이 아니라 일부 리버럴한 사람들이 휩쓸려 증폭시키는 것 아닌가요.

“4·19, 5·18, 6·10민주항쟁 등을 보면 당시 민주화 투쟁을 위해 데모했던 사람들은 ‘독재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하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으로 한반도 안정 확보하자”

☑ 반대로 공산주의자는 자유민주주의를 타도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군사독재를 타도하자고 하면서 민주화세력에 얹힌 거죠. 그 다음 통일전선전략원칙에 따라 리버럴한 사람들을 공략하면 쉽거든요. 사실 이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친북적인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남갈등의 한 가운데에 교묘히 끼어들어와 이들을 조정해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겁니다. 정치전에서는 우리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북한과는 게임이 안 돼요.”

— 안보리 회부 등 북한 압박에는 중국의 설득이 꼭 필요한데요.

“제가 소장을 맡고 있는 신아시아연구소에서 중국 측의 제안으로 한중 전략대화를 3번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모두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고요. 작년 12월 열린 전략대화에서 중국대표가 ‘6자회담으로 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핵을 버리고 망하는 북한보다는, 핵을 가지고 살아남는 북한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핵을 제거하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받았습니다.

사실 중국, 미국, 일본에게는 북한 핵 문제는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협적입니다. 중국분들에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북한 핵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한다’고 하니가 상당히 놀래요. 4천9백만명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밀유도무기로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즉, 억지전략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미국과의 G2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를 리드하려는 의지가 최고조에 달해있는데, 북한을 지원하면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국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를 몰아붙여 우리가 미일동맹 쪽으로 더 가깝게 가 한미일 공조체제로 나아가면 중국도 걱정이 커 집니다. 어쨌든 중국은 상하이 엑스포와 G2의 위상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 통일 문제는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독에서 정치혁명이 일어나 서독과 합의 통일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통일할 수도 있습니다.金正日위원장이 권력에서 물러나면 나머지 핵심 권력자들이 중심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들은 안목이 넓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과 타협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요. 우리도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신변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독일의 예를 다시 들게요. 당시 동독의 정치가 중 한 명을 인터뷰 한 적이 있는데,



대학시절 산악반·역도반도 창설

“자기 발전 위해 노력하는 후배되길”

동베를린에서 계속 데모가 일어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걸 진압하면 오늘 하루는 넘어갈 수 있지만 내일 되면 또다시 데모할 텐데, 만약에 오늘 진압하지 않으면 동독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를 간파한 서독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연금도 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회의에서 이 말을 꺼냈더니, 참석자 대부분이 먼저 말을 못 꺼냈지 동의하더라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의 합의를 가능했던 이유는, 동독과 접촉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할 인물을 한 사람 지명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 역할을 맡도록 여야간 합의를 봤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믿지 않는 이유가 매번 장관급회의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오니까 속내를 털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북에게 신뢰를 주고, 북한 지도층에게 약속을 한다면 독일처럼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한중일 관계도 중요 합니다. 전략적 레버리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7월 서울에서 중국과 전략대화가 있는데,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세션을 어젠다에 넣었습니다. 중국과 우리가 동맹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다분히 이념적인 차이 때문이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만 민주화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안색이 좋지 않아요(웃음). ‘중국 지도자 중에서 덩샤오핑을 제일 좋아하는데, 덩선생은 2050년까지 중국은 민주화로 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일종의 과도기이자 준비하는 기간이며, 전 국민에게 시 민교육을 시켜 민주화가 이뤄지는 때가 2050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 씀하셨다고 했더니 저보고 낙관적인 것 같다고 하면서도 흐뭇해하더군요(웃음).”

— 통일 비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일을 하는데 비용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비용이 든다고 안 할

을 했지만 대학은 입학만 수석으로 했습니다. 2학년 때 부친께서 몸이 편찮아 가장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이 한이 돼 미국 유학을 결심하고 하와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봉직하셨는데, 국내 처음으로 북한정치론 강의를 개설하셨죠.

“북한 주민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북한을 연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북한정치야말로 평화질서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기 때문에 강의를 개설하고 공산권 연구협의회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 형제, 부인과 3녀1남, 사위가 서울대 가족인데, 가훈이 뭐니까.

“자녀들에게 ‘똥똥하게’ 살면서 받은 것보다 더 베푸는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 매우 건강해 보이세요.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요즘엔 바쁘다보니...; 그래도 일주일에 세 번은 헬스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학시절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이력 중 하나가 서울법대 산악반 초대 회장입니다. 산악반을 창립해 졸업한 후에도 OB산악반인 ‘한오름’을 만들어 지금까지 80여 명이 활발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법대 건물마당에 링을 설치해 기계체조를 하고 역도반도 만들었습니다. 하와이 유학시절엔 수영과 스쿠버다이빙을 했고요. 한림대 총장을 할 때는 지나가는 길에 승마장이 있어 새벽에 교습을 할 수 있느냐고 간청해 아침 6시부터 한 시간씩 승마를 배우고 출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 후배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살아보면 알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기 발전, 자기 성장을 위해서 뜻을 펼치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줄까. 자신이 바로 서야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한림대 총장시절에는 학생들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덕이라고 해서 翰林五德을 만들었는데, 첫째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自尊, 둘째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어나가는 修己, 셋째 공익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爲公, 넷째 대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順理,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博愛)을 지니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총동창회 부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셨는데, 동창회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나라의 리더를 배출하는 엘리트 집단의 요람입니다. 동창회가 그러한 정신을 계속 다듬어가고 지켜나가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엘리트라는 점을 자각하는 책임의식 또는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잊지 않도록 동문들을 계속해서 복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表智媛기자·사진= 金南柱기자)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딸이 대학 간다고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용을 계산해서 줄까, 말까 생각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와 같은 논리죠. 우리 딸이 필요하면 내가 밥을 안 먹고라도 등록금을 마련해야죠. 남북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주민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다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 가야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희생을 감소하고 양보해야죠. 그런데 지금 계산된 통일비용은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과다 책정한 것으로 봐야죠. 북한의 생활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반적인 수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토지제도를 고치고 영농법을 도입하면 농업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고·대학을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중·고등학교는 수석 입학과 수석 졸업

“안방에서 모교 강의 수강하세요”

평생교육원서 SNUi 서비스 개시

모교 소식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5월 19일 관악캠퍼스 롯데국제교육관 208호에서 평생교육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교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강의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는 ‘온라인 지식 나눔(SNUi)’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개원식에는 모교 李長茂총장을 비롯해 평생교육원 梁豪煥원장,

SNUi 사업추진위원회 安國正(본보 논설위원)·趙東成공동위원장, 모교기술지주회사 盧政翼대표 등 보직교수 및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해 모교의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나타냈다.

지식의 사회적 나눔을 실현하고 대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설립된 평생교육원의 SNUi 서비스는 평생교육원의 원격교육지원부서가 담당해 전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梁豪煥원장은 인사말에서 “평생교육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품



격을 갖춘 시민 교양교육과 융합과 개방을 선도하는 21세기 열린 교육의 장이자, 평생 학습시대를 향한 혁신적 교육 장소”라고 소개하고, “배움과 실천의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 모든 분들의 소중한 꿈이 의미있게 실현되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식 나눔을 실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NUi 강좌는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 파일럿(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9월부터 정식으로 연간 4개 학기, 학기당 12주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공강좌는 학내 교수, 단과대학, 연구소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우수 콘텐츠를 공모해 선발함으로써 서비스 프로그램을 고급화하고 다양화할 예정이다.

수강 절차는 SNUi 홈페이지(<http://snui.ac.kr>)에서 강좌를 선택한 후 등록하면 된다. 지난 프로그램은 과목당 3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정규 학기부터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다. 다음 수강신청은 8월 중에 진행된다. 수강생은 프로그램별로 수업을 도와주는 튜터의 도움을 받아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평생교육원장과 강의제공기관장 공동명의로 이수증을 발급 받게 된다.

한편 오프라인 교육과정인 평생교육원은 오는 9월 개강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과대학

서암법학관에 ‘역사관’ 개관

법과대학(학장 金建植)은 지난 5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서암법학관(72동) 2층에서 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金信福부총장·權壽赫 前총장을 비롯해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李相赫부회장, 법과대학 金正國동창회장 등 모교 보직교수 및 법대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했다.

金建植학장은 인사말에서 “법대 연원은 1895년 최초 국립법학교육 기관으로 설치된 법관양성소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귀중문서실의 설치와 운영은 물론이고 역사관 개관을 위해 기초 작업을 주도해 준 崔鍾庫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金信福부총장의 축사와 崔鍾庫교수의 개관 기념 강연, 제막식 및 기념 촬영 등이 있

었으며, 참석자들은 역사관을 관람하며 모교 법대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崔鍾庫교수는 ‘서울법대 역사관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역사관은 지난 과거의 골동품적 취미 집합이 아닌 과거를 보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다짐하는 기도처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보살핌으로 더욱 역사관이 풍부해지고 비옥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역사관에는 모교 법대의 모태인 1895년 법관양성소와 1911년 경성전문학교,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1946년 동숭동 캠퍼스, 1975년 관악캠퍼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자랑스러운 법대인 명단과 법대 연혁 등도 전시돼 있다.

아시아 대학평가 6위 작년보다 2계단 상승

모교가 최근 조선일보와 영국 대학평가 기관인 QS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0년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6위에 올랐다.

전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홍콩대가 차지했으며 2위는 홍콩과학기술대, 3위 싱가포르 국립대, 4위 홍콩 중문대, 5위는 도쿄대 순이었다. 이번 평가는 ▲연구능력(60%) ▲교육수준(20%) ▲졸업생 평판도(10%) ▲국제화(10%) 등 4개 분야를 점수화해 순위를 매겼다.

국내 순위에서는 모교가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KAIST(13위), 포스텍(14위), 연세대(19위), 고려대(29위)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평가는 아시아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기관 평가이며 올해는 국내 80개 대학을 포함해 아시아 11개국 4백4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아시아 대학에 대해 잘 아는 전세계 4천5백46명의 학자들이 뽑은 아시아 대학 부분인지도 평가에서는 모교가 5위를 차지했으며 도쿄대가 1위에 올랐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7월 31일까지 후보 추천

서울대인의 영예이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수상자는 매년 개교기념일(10월 15일) 전에 개최되는 기념식에서 발표합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각계 동문들께서 적격자를 추천해주시길 바랍니다. 7월 31일까지 모교 기획처(전화 : 880-5082, 팩스 : 889-7489)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병원장·대학(원)장 바뀌었어요

모교 병원장 丁憲源교수



지난 5월 31일 모교 병원장에 丁憲源(의학69-75)교수(사진)가 취임했다.

모교 병원 이사회는 지난 4월 28일 成相哲원장 후임으로 신경외과학교실 丁憲源교수와 내과학교실 吳秉熙교수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해 대통령이 후보 1순위인 丁憲源교수를 최종 임명했다.

신임 丁원장은 모교 기획조정실 기획담당 교수·진료환경개선위원회 위원장·보라매병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3년이다.

보건대학원장 白道明교수



지난 5월 12일 보건대학원 원장에 白道明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白원장은 1975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1981년 졸업, 1986년 영국 런던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모교에 부임한 白원장은 모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장·부원장·국민보건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치과병원장 金明鎭교수



지난 5월 30일 모교 치과병원장에 구강안면외과학교실 金明鎭(치의학70-77)교수(사진)가 임명됐다.

모교 치과병원장은 치과병원 이사회를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임 金원장은 모교 기록관 전문위원, 모교 치과병원 진료처장, 서울시장에인치과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金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법대 학장 鄭宗燮교수



지난 6월 1일 법과대학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장에 鄭宗燮(법학 77-81)교수(사진)를 선출했다.

신임 鄭학장은 모교 졸업 후 1986년 경희대에서 석사, 1989년 연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건국대 교수를 거쳐 1999년 모교에 부임한 鄭교수는 美하버드대 방문교수, 동아일보 객원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榮)

50억 이상 기금 출연자에 거주형 캠퍼스 헌정합니다

모교 발전기금은 올해 6월까지 ‘핵심 모금 사업’에 50억 이상을 출연한 기부자 7명을 선정해 7월 완공 예정인 신축형 기숙사 7개동에 각각 기부자 명의로 기숙사 1개동을 명명해 드립니다.

- ◆헌정내용 : 기부자의 아호 또는 희망명칭으로 기숙사 1개동에 명명 (ex. 〇〇〇홀)
- 해당 동 1층 로비에 기부자 부조와 공적 기록물 설치
- ◆관련문의 : 02)871-1620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이사장 李 長 茂

鄭哲圭이사장에 명예박사학위 모교와 고무산업 발전에 기여

모교는 지난 5월 7일 관악캠퍼스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신양문화재단 鄭哲圭이사장(사진 右)에게 명예 공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모교 李長茂총장을 비롯해 본회 金在淳명예회장·林光洙회장·成百詮부회장, 각 단과대 학장 및 보직교수와 가족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鄭哲圭이사장은 1948년 모교 화학공학과에 입학, 1952년 졸업해 50여 년 동안 독자적인 노력과 기술로 공업용 기능성 고무제품의 국산화와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 고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고의 기술경영인이다.

1998년 신양문화재단을 설립한 鄭이사장은 지난 12년 동안 사회 곳곳에 장학금, 교육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에 매진했다. 특히 모교 공대·인문대·사회대에 신양학술정보관Ⅰ·Ⅱ·Ⅲ을 건립하고 난치병 연구기금, 의과대학 연구기금, 기금교수 초빙기금을 출연하는 등 10여 년간 1백여 회에 걸쳐 약 1백33억원을 기부함으로써 모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鄭이사장은 “국내인으로서 서울대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인데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저에게 귀한 학위를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다”며 姜信榮前고무학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탁월한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 환경 개량에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모교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앞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는 1948년 첫 수여이래 金壽煥추기경, 사사키 다케시 前동경대 총장, 潘基文 UN 사무총장, 벨기에 이브 레테름 총리 등 총 1백8명(외국인 98명, 한국인 10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崔廷旭동문에 감사패 전달 20년간 2억7천여만원 기부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은 지난 5월 12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20년간 2억7천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해온 오봉인터내셔널 崔廷旭(화학공학49-56)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모교 李長茂총장을 비롯해 공과대학 姜泰普학장, 발전기금 南益鉉상임이사 등 학내외 초청 인사들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기록원(원장 김덕은)은 崔鍾旭회장의 모교 사랑에 대한 기부를 ‘최장연례고액기부’ 부문 최

고기록으로 인정해 이날 인증서를 수여했다.

崔廷旭회장은 지난 1991년 회갑을 맞이해 ‘오봉장학기금’을 설립하고 발전기금에 매년 1천만원 이상을 꾸준히 출연해왔으며 수혜 장학생은 28명에 달한다. 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 장학기금을 설립해 동문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崔회장은 쌍용양회공업에서 세계 최대 시멘트 공장 설립을 주도했으며, 1982년 시멘트 공장 관련 기자재를 수출입하는 오봉인터내셔널을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榮)

제학생의 소리



세일링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서울대 요트부 주장입니다. 대입 후 요트부에 들어와서 세일링을 통해 인생을 배우면서, 동서양의 수많은 속담과 명언들이 왜 항해에 대해 언급하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요트부는 1987년 창립 이래, 24년째 활동하고 있는 역사 깊은 운동부입니다. 창립 멤버인 모교 조선해양공학과 李信亨(조선해양공학86-90)교수님이 현재 지도교수를 맡고 있을 만큼 선배들 간 끈끈한 정과 지원을 자랑합니다. 현재까지 80여 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서울시 대표로 전국 체전에도 출전하는 등 대학 요트부 가운데 명문으로 학교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일링은 매주 토요일마다 월드컵경기장 옆에 위치한 난지마리나에서 실시합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2주간의 일정으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여름에는 딩기 훈련, 겨울에는 크루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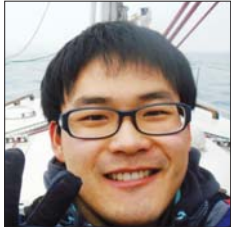
요트로 대자연과 소통하다

요트훈련을 합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제주도에서 전지훈련을 했으며, 겨울에는 경남 통영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해 부원들의 세일링 실력과 친목도모를 이뤘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요트가

소통하다 보면, 어느새 요트는 사라지고 대자연과 마주한 별거 벗은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동창회보에 요트와 요트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널리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요트라고 하면 사치스럽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물과 바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약간의 모험심만 있다면 요트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세일(돛)’이라는 커다란 천조각과 ‘러더(방향타)’라는 작은 나무 조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자연과

서는 요트와 같은 해양스포츠가 발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트를 타기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트를 즐기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요트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세일링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薛 東 憲(사회05입)

요트부 주장

콩트 릴레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金 燕 景(노문93-97)소설가



1983년 미송 양은 여덟 살이었다. 미송 양의 아빠는 농산물공판장에서 일했다. 집과 공판장 사이에는 무척 넓은 시장과 무척 큰 공원이 있었다. 점심때마다 미송 양은 아빠에게 도시락을 갖다주기 위해 머나먼 길을 걸어야 했다. 이 일이 미송 양은 참 좋았다. 동네 밖을 벗어날 수 있는, 그리하여 낯선 사람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다.

미송 양의 가족은 마당이 넓은 집에 흙처럼 붙어 있는 단칸방에 세 들어 살았다. 주인집은 방이 세 칸이나 됐는데, 주인아줌마와 영신이 언니 단 둘만 살았다. 주인 아저씨는 선원이라서 늘 바다에 나가 있다고 했다. 미송 양은 그를 본 적이 없었지

일요일 아침, 미송 양은 엄마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예쁘게 묶어 올리고, 어깨 끈이 달린 주름치마를 입었다. 레이스가 달린 하얀 양말에 하나밖에 없는 구두도 신었다. 영신이 언니와 함께 289종점까지 가는 내내 미송 양은 달떠 있었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자 낯선 건물들이 빠른 속도로 미송 양의 눈을 훑고 지나갔다. 울긋불긋한 간판들의 행렬도 끝이 없었고, 거리를 오가는 낯선 사람들의 무리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미송 양은 커다란 눈 안에 집어넣겠다는 듯, 작은 머릿속에 아로새기겠다는 듯 게걸스럽게 뜯어보았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미송 양은 차들이

또 그랬기에 재미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함께 떠들고 웃을 친구가 없는 미송 양은 심심하다 못해 외로워졌다. 미송 양에게 필요한 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느님 아버지가 아니라, 저 3층에 있는 것이 확실한 영신이 언니였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미송 양은 부리나케 밖으로 뛰어 나갔다.

등나무 아래, 벤치 주변은 낯선 사람들로 북적였다. 당연히, 영신이 언니는 보이지 않았다. 미송 양은 언니와 한 약속을 생각했다. 하지만 언니를 기다리는 시간은 한없이 길지만 했다. 마음이 초조해지자 집에 가고 싶어졌고, 그 바람이 커지자 오줌이 마려웠다. 미송 양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찾아 헤맸다. 1층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어둡고 길었다. 간신히 화장실을 찾아낸 뒤에는 줄이 길어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미송 양은 3층으로 올라갔다. 중등반 예배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자, 말꼬리처럼 묶어 올린 머리채가 통째로 위로 쭈뼛서는 것만 같았다. 미송 양은 자기 옆에 서 있던 한 아줌마에게 물었다.

“저어기요, 중학생 언니들 벌써 끝났어요?”

“방금 끝났는데, 왜?”

미송 양은 황급히 고맙다는 말을 하고선 다시 등나무 벤치로 달려갔다.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07)

오랜 고독과 불안에서 해방된

미송 양은 울먹이며 사정을 얘기했다.

그는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미송 양의 손을 잡았다.

엄마와 아빠가 늘 조심하라고 했던

‘모르는 사람’과 함께 걷는

낯선 길은 뜻밖에도 어딘가

따사롭고 포근한 구석이 있었다.

만 원지 덩치가 크고 얼굴이 시커멓고 턱과 목에 수염이 잔뜩 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야만 집채만큼 커다란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일에 어울릴 것 같아서였다. 먼 바다를 가르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 아빠의 도시락을 들고 살가운 봄바람을 맞으면서 시장을 가로질러, 또 공원을 에둘러 공판장에 가는 것과 비슷할까.

“언니, 아빠 따라 바다에 나가본 적 있어?”

언니는 한 번도 없다고 말했고, 미송 양은 실망했다. 바다라는 곳은 공판장과는 전혀 다른 곳인 모양이었다.

“에이, 언니 따라 멀리, 멀리 나가보고 싶었는데...”

이 말에 영신이 언니는 피식 웃었다.

“그럼 교회에 가볼래? 거기도 무척 멀거든.”

“정말? 얼마나 먼데?”

“버스 타고 한참 가서 또 한참 걸어야 되지.”

“우아!”

미송 양은 어서 빨리 일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앞뒤로 뺨뺨 달리는 아스팔트길 위에 섰다. 길을 잃을까봐 두려워 저도 모르게 영신이 언니의 손을 꼭 잡게 됐다. 모든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또 너무 많았다. 교회도 마찬가지로였다. 마당은 미송 양의 집 마당의 서너 배는 족히 돼 보였다. 건물도 무척 높았다. 고개를 뒤로 젖히자 벌어진 입이 좁처럼 다물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영신이 언니는 미송 양을 교회 안 2층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중등반 예배실 앞에서 미송 양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네가 더 빨리 끝날 거야. 어디 가지 말고 등나무 밑에 앉전히 앉아 있어. 알겠지?”

미송 양은 영신이 언니를 올려다보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신이 언니는 3층으로 올라갔다.

목사님이라 불리는 할아버지의 말은 길고도 길었다. 설교와 기도와 찬송가 사이로 아이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다.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꾸지람을 했다. 아이들은 웃음을 참아야 하는 상황이 웃겨 더 많이 웃어댔다. 미송 양은 이 모든 것이 낯설었고

등나무 주변의 풍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영신이 언니는 이번에도 없었던 것이다. 언니가 자기를 버렸든, 길이 어긋났든 어쨌거나 이제는 혼자 힘으로 집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7년을 간신히 넘긴 미송 양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이었다.

홀로 걷는 낯선 길은 어딘가 서늘했다. 해가 기울면서 바람이 쌀쌀해지고 세상의 색깔이 약간 흐릿해진 까닭인지도 몰랐다. 미송 양은 앞만 보고 걸었다. 오직 ‘289’라는 숫자만이 미송 양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교차로가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걸어갔다. 가도 가도 길은 낯설기만 했고, 또 동시에 가도 가도 제자리인 것 같았다. 바다 위를 헤매는 선원 아저씨의 기분이 이런 것일까. 조그만 미송 양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들끓었다. 여동생과 실장기 놀이를 할 때처럼 그 생각들을 순서대로 붙잡아 예쁜 모양으로 엮어보려고 했지만, 이 역시 실장기 놀이처럼 도무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때 미송 양의 눈앞에는 초록색 버스들로 뒤덮인 새까만 아스팔트가 기적처럼 나

타났다. 하지만 미송 양이 감당해야 할 인생은 실로 길고 험난한 것이었다. 아스팔트길은 찾았지만 버스 정류장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른쪽 왼쪽 모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할지 난감했다. 뱃속에선 꼬르륵 소리가 나고 발바닥과 종아리가 사정없이 아려왔다. 미송 양은 계속 눈을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달려오는 버스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미송 양이 몇 걸음을 떼어놓기가 무섭게 버스는 이내 저만치 멀리 가버렸다. 미송 양은 온 몸에 힘이 쭉 빠졌다. 절로 숙여진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 미송 양의 맞은편에서 어떤 아저씨가 걸어오고 있었다. 덩치가 무척 크고 얼굴이 시커멓고 턱은 물론 목덜미까지 시커먼 수염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 꼭 상상 속의 선원 아저씨 같았다. 미송 양은 그에게로 달려가 다짜고짜 물었다.

“아저씨, 289버스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289? 아니, 어린이가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어?”

“영신이 언니 아빠가 선원이라서 늘 바다에 나가 있는데요, 나도 멀리 나가보고 싶어서 영신이 언니 손잡고 교회에 왔는데요, 우리 집은 289종점이구요...”

“다 좋은데, 그 영신이 언니는 어디 있어?”

오랜 고독과 불안에서 해방된 미송 양은 울먹이며 사정을 얘기했다. 그는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미송 양의 손을 잡았다. 엄마와 아빠가 늘 조심하라고 했던 ‘모르는 사람’과 함께 걷는 낯선 길은 뜻밖에도 어딘가 따사롭고 포근한 구석이 있었다. 버스 정류장은 한참을 걸어간 뒤에야 나왔다. 버스가 도착하자 아저씨는 미송 양을 안아 올려 버스에 태워줬고 버스 운전수에게 동전 하나를 건넸다.

“아가 길을 잃은 모양인데, 종점까지 좀 태워다 주세요.”

그러곤 미송 양을 쳐다보았다.

“종점까지만 가면 혼자서 찾아갈 수 있겠지?”

“예!”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미송 양은 완전히 뒹굴어졌다. 잠에서 깼을 때 버스는 이미 종점에 다다른 상태였다. 미송 양은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달려갔다. 남동생을 등에 업은 엄마가 여동생과 함께 대문 밖을 초조하게 오가고 있었다. 영신이 언니는 그 옆에 힘없이 서 있었는데, 울어서 눈이 툭툭 부어 있었다.

“지금 막 경찰서에 연락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 기특하기도 하지! 그 먼 길을 혼자 어떻게 찾아왔을까!”

미송 양은 굶주린 배를 채운 뒤에야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제야 중대한 사실이 상기됐다.

“아저씨한테 고맙다는 말도 못했네. 어떡하지, 엄마?”

미송 양은 속이 상해, 양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엄마는 옆에서 미송 양의 치마를 개고 있었는데, 호주머니에서 오십원짜리 동전 두 개가 절묘한 화음을 내며 앞을 다투어 떨어졌다.

“아! 차비도 있었구나! 그 아저씨 만나면 꼭 고맙다고 말하고 오십원, 아니 백원 다 줘야지!”

하지만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그런 행운은 일어나지 않았다.

동 정

수 상

▲金炯孝(철학58-62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지난 5월 14일 대한불교 진흥원으로부터 제1회 원효학술상(교수 부문) 대상 수상.

▲李正洙(회화58-64 前강원대 교수)=지난 4월 19일 서울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제50주년 기념식에서 건국포장 수훈.

▲南喆鉉(보대원62-64 대한한의대 명예교수·대한보건교육사회장)=지난 5월 7일 '보건교육사'의 국가자격화에 기여해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로부터 공로상 수상.

▲吳允晉(행대원63-65 前해병대 전우회 총재·安重根의사승모회 자문위원)=지난 5월 16일 제45회 5·16민족상(안전보장부 문) 수상.

▲李基榮(가정교육66-70 모교 소비자자동학부 교수)=지난 5월 17일 2010년 가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趙鎭旭(화학공학75졸 한국바스프 회장)=지난 5월 4일 한국능률협회로부터 '2010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愼昌幸(의학72-78 교보생명보험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5월 25일 제19회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수상.

▲金義煥(공업교육73-77 국방과학연구소 전차사업단장)=지난 5월 16일 제45회 5·16민족상(과학기술부문) 수상.

▲朴相勳(화학공학73-77 SK 기술혁신센터장)=지난 5월 19일 제45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 산업훈장 수훈.

▲孫英淑(식품영양76-80 경희대 교수)=지난 5월 19일 생화학 분자생물학회 학술대회에서 6회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수상.

▲金奇南(전자공학77-81 삼성전자 사장)=지난 5월 19일 제45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崔秀哲(불문77-81 한신대 교수·소설가)=지난 5월 28일 제17회 김준성문학상(옛 이수문학상) 수상.

▲閔丙贊(SPARC 14기 한밭대 교수)=지난 4월 21일 제4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포장 수훈.

국가과학자 8명 모두 동문... 매년 15억원씩 지원



李瑞九교수



金光洙교수



申喜燮교수



劉龍교수



南洪吉교수



盧泰元교수



黃準默교수



金秉내교수

지난 4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세계적 수준의 독창적 연구성과를 창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할 2010년도 국가과학자 5명을 새로 선정, 발표했다.

올해 선정된 국가과학자는 포스텍 金光洙(응용화학67-71)교수, 모교 물리전문학부 盧泰元(물

리82졸)교수, 포스텍 南洪吉(화학75-82)교수, 고등과학원 黃準默(물리82-86)교수, 모교 생명과학부 金秉내리(미생물88-92)교수다.

이번 선정으로 국가과학자는 2006년에 선정된 이화여대 李瑞九(화학65졸)교수, KIST 申喜燮(의학68-74)신경과학센터장, 2007년에 선정된 KALIST 劉龍(공업화학73-77)특훈교수를 포함해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들에게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최대 연구비인 매년 15억원을 최장 10년간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평가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이덕수(ACAD 44기 타임즈코어 회장)=지난 5월 19일 제3회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영자신문부문) 수상.

인 사

▲金榮石(경제60-66 前우석대 총장·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최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회장에 임명.

▲河明根(경영66-70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최근 임기 3년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3대 청장에 선임.

▲柳錫熙(의학66-72 중앙대 교

수)=최근 대한고혈압학회 제19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회장에 취임.

▲李熙範(전자공학67-71 STX에너지·중공업 회장)=지난 5월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차기 회장에 추대.

▲成相哲(의학67-73 모교 병원장)=지난 5월 7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35대 회장에 선출.

▲白鍾萬(사회사업73-77 전북대 교수)=지난 5월 20일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

▲李相龍(사회사업74-78 前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지난 5월 23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2대 원장에 임명.

▲金根秀(경영77-81 前기획재정부 국가브랜드위원회 사업지원단장)=최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 선임.

▲金在佑(행대원84졸 前아주그룹 부회장)=지난 5월 19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선출.

▲金善洙(법학79-86 변호사)=지난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에 선출.

▲鄭星姬(국사82-86 동아일보 논설위원)=지난 5월 20일 한국여기자협회 부회장에 선임.

▲李昌魯(산업공학84-88 한국기술투자자 이사)=최근 한국기술투자자 투자본부 상무에 선임.



▲車潤貞(임학85-89 경원대 책임연구원)=지난 5월 17일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분부장에 임명.

▲成得龍(동물자원88-92 삼성벤처투자 근무)=최근 한국기술투자자 투자본부 팀장에 선임.



▲朴健東(SGS 7기 前동원시스템즈 건설부문 사장)=지난 4월 29일 대보건설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행 사

▲趙 淳(상대전문46-49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지난 5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팔순 기념문집 '이 시대의 희망과 현실' 봉정식 개최.



▲南應祐(대학원56졸 한일협력위원회 회장)=지난 5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외교와 한일협력'이란 주제로 국제심포



지엄 개최.

▲柳宗夏(정치55-59 대한적십자사 총재)=지난 5월 7일 서울 남산동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제63회 5·8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 개최.



▲李在昌(법학56-60 새마을운동중앙회장)=지난 5월 17~20일 몽골에서 사막화 방지 '그린 몽골리아-1사람 1나무심기'



선포식 개최.
▲李起盛(지리64-68 계원디자인예술대 교수·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지난 5월 26일 동국대에서 '세계 속의 한국 콘텐츠 출판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徐東喜(응용미술66-70 건국대 교수)=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가 주관한 'Top 100 Educators - 2010'에 선정. 또 지난 6월 11~17일 건국대 공예관 건립 22주년 기념 도자기 기념품 전시회 개최.



▲朴憲烈(화학공학67-71 중앙대 힐텍·힐빙 문화연구소장)=지난 5월 13~14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에서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李光澤(행정68-75 국민대 교수·한국사회법학회 회장)=지난 5월 25~28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에서 열린 국

제노동사회법학회 집행위원회 및 제8차 미주지역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安炳燦(신대원71-75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5월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보네트워



크,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黃奎昊(경제74-78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지난 5월 22~23일 서울 여의도동 한강공원 수상경기장에서 제4회 카누·드



래건보트 대회 및 제3회 해양소년단 총재배 요트대회 개최.

▲鄭在浩(국어교육79-83 모교 외교학과 교수·중국어연구소장)=지난 5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국의 위기관리'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李相起(서양사학81-87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본보 논설위원)=지난 5월 24~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세계



여 명의 방송사 CEO 및 언론인으로 구성된 제7회 아시아 미디어 서밋에 참석. 26일 인민일보 사장 출신인 중국기자협회 샤오후아제직전 회장과 양국 언론교류에 대한 의견 나눔.

▲崔眞珠(회화81-85 경북대 강사)=지난 6월 9~15일 서울 관훈동 토포하우스에서 '지나간 봄'을 주제로 전시회 개최.

▲朴鍾豪(성악81-85 크로스오버 테너)=지난 5월 20~22일 서울 홍지동 상명아트센터에서 콘서트 'The STORY-나의 사랑, 나의 가족 이야기' 개최.

▲尹梨那(성악86-90 수원대 교수·소프라노)=오는 7월 31일까지 서울 잠실동 샤롯데씨어터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칼롯타 역으로 공연.



▲薛均泰(횡대원88-90 순창 설씨대종회장)=지난 4월 25일 부산시 薛東根교육감에게 '자랑스런 경주, 순창 설씨인상' 시상.



▲이태정(기악93-97 바이올리니스트)=지난 6월 7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스아트홀에서 이니스앙상을 단원인 임만희(기악95-99 피아니스트)·채경애(기악95-99 바이올리니스트)·이현정(기악



96-00 첼리스트)등문 등과 함께 '낭만, 그 Klang의 향연'을 주제로 정기연주회 개최.

▲金時亨(작곡92-96 명지대 교수)=오는 6월 16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친구들이 함께 하는 음악이야기II' 개최.



▲徐允晉(기악94-98 동아대 초빙 교수·피아니스트)=지난 6월 1일 창원 성산아트홀,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모교 기악과 아비람 라이히르트 교수와 듀오 연주회 개최.

▲노윤진(기악03-07 첼리스트)=지난 6월 18일 서울 여의도동 영산아트홀에서 덕영트리오 단원인 전재성(기악03-08 바이올리니스트)등문 등과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음악회 개최.



▲金澈運(AMP 33기 한국물가협회 회장)=지난 5월 11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5회 물가안정대상 시상식 개최.

명복을 빕니다

▲李相洙(물리46-49 KAIST 명예교수)=5월 7일 별세(85세)
▲林善旭(농화학52-56 모교 명예교수)=5월 30일 별세(78세)
▲姜命圭(경제52-56 모교 명예교수)=5월 30일 별세(77세)
▲李珍雨(법학52-56 前국회의원)=5월 9일 별세(76세)
▲金光一(법학58-62 변호사)=5월 24일 별세(71세)
▲李相安(횡대원74-76 前경찰대 교수)=5월 18일 별세(65세)
▲延濟源(AMP 3기 삼모흥업 회장)=5월 6일 별세(83세)
▲鄭錫弘(ACAD 20기 동신대 객원교수)=5월 24일 별세(74세)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6·25와 나

— 李夏雨·崔 明 공편



지난 5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1958년 모교 법대에 입학한 동기생들의 6·25전쟁 회고담을 모은 책 ‘6·25와 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李夏雨(행정58-62)동문, 모교 정치학과 崔 明(법학58-62) 명예교수 등 모교 법대 58학번 동기 38명이 60년전, 초등학교 5~6학년 시절 체험한 6·25전쟁에 대한 기억을 풀어놓았다.

대부분 현역에서 은퇴한 70대의 동문들은 소년시절의 상처만을 아파하지 않았다. 역사의 비극이 마치 남의 일처럼 잊혀져 가는 세태를 더욱 안타깝게 여겼다. 〈까지글방刊·값16,000원〉

■ 통일한국의 어린이영양

— 李連淑 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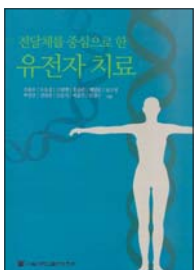


모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李連淑(농가정65-69)·尹芝賢(식품영양88-93) 교수, 생활과학연구소 張水禎(농가정88-92)연수연구원, 沈在恩(식품영양90-94)일리노이대 방문연구원이 남북한 어린이의 성장발달과 영양 그리고 영양정책 등의 식생활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통일 이후 남북한 어린이의 식생활 문제와 영양상태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가장 적절하면서도 효율적인 영양정책수립에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총망라해 정리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5,000원〉

■ 전달체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 치료

— 曹鍾守 외 지음



모교 농생명공학부 曹鍾守(잠사학66-70)·諸連鎬(전연섬유86-90)교수, 수의학과 趙明行(수의학78-85)교수, 제약학과

吳裕耕(제약82-86)교수 등이 다양한 유전자 전달체에 대해 설명했다.

이 책은 유전자 전달체인 바이러스, 벡터로바이러스, 리포솜, 고분자 벡터의 특징 및 유전자 치료에의 응용, DNA 백신의 효과적인 전달법과 전망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실제 유전자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과 한국, 미국, 일본에서의 유전자 치료제 임상 시험에 관한 규정과 절차도 수록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5,000원〉

■ 태아 심초음파

— 崔正衍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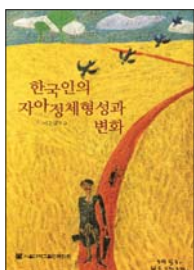


모교 의대 소아과학교실 崔正衍(의학68-74)교수가 태아 심장 질환의 양상과 진료, 예후관리, 초음파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또 환자의 출생후 사례도 함께 소개해, 산모 배 속의 태아부터 출생후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아내어 소아 심장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병원에서 실제 진단에 사용하는 기법은 동영상인데, 기존 교재들은 대부분 사진자료에 의존하기에 교육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병원 현장에서 쓰는 방법과 동일한 기법인 초음파 동영상을 그대로 담아 한 장의 DVD와 동영상 해설집도 함께 펴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80,000원〉

■ 한국인의 자아정체 형성과 변화

— 李順炯 지음



모교 소비자자아동학부 李順炯(가정관리74졸)교수가 그동안의 자료와 통계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인의 자아정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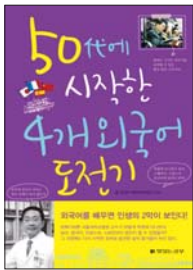
李교수는 한국인의 자아정체형성의 변화에 따라 드러나는 형태를 시대의 흔적을 따라 찾아내 해석하고 소개한다. 연구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자아정체 이론의 논쟁점, 가상공간의 특성, 연구대상, 연구절차, 자기개념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식과 관련해 자기개념, 자아정체를 명확하게 밝혀보려는 시도와 가상자아와 실자아의 관계를 규명해 일치 정도를 밝히고 각각의 특성을 밝히려는 시도가 새롭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20,000원〉

■ 50대에 시작한

4개 외국어 도전기

— 金元坤 지음



모교 의과대학 심장연구소 金元坤(의학72-78)소장의 외국어 도전기. 50대가 돼 우연히 시작한 외국어 공부로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의 4개 외국어를 정복하게 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았다.

인생의 중·장년기가 되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특히 후반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공부할 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소개해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맛있는공부刊·값11,000원〉

■ 도시와 유비쿼터스 융합

— 吳在寅 지음



단국대 경영학부 吳在寅(경영76-80)교수가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와 기술이 융합된 도시인 ‘u-City’를 정의하고, 구성요소간 상호관계를 명쾌히 밝히고 있다. 먼저 시각 전환에 걸맞게 u-City 이슈들을 엄선하고, 내용이나 목차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차별화했다.

또 다양한 모형이나 프레임워크를 새로이 개발하고 적용하는 등 독창성을 제고했다. 예를 들면 u-City 구성요소들간 상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치사슬 모형을 활용하고 불확실한 u-City 방향성을 가시화하기 위해 시나리오 경영기법을 적용했다. 〈박영사刊·값19,000원〉

■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

— 張寅性 엮음



모교 외교학과 張寅性(외교77-81)교수가 광운대 姜泰雄(동양사학91-97)교수 등과 함께 일본의 보수적 실재에 접근한 책. 특히 표상의 관점에서 일본의 보수를 들여다본다.

공 연

■ 소노리테 목관5중주

— 6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지난 2008년 플루티스트 장선우(기악94-98 원주시향 수석) 동문을 중심으로 결성된 소노리테(Sonorite 울림)팀이 6월 2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동유럽의 목관음악’을 주제로 테마음악회를 개최한다.

오보이스트 조경은(기악94-98 인천시향 부수석)동문, 호른니스트 최경일(기악91-95 부천팔하모니 오케스트라 제1수석)동문 등과 함께 파르카스, 드보르작, 리게티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부암아트홀 391-9631〉

■ 서수민 비올라독주회

— 6월 26일 예술의 전당

양상블 에클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서수민(기악97-01)동문(사진)이 6월 26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비올라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모차르트, 슈만, 생상스 등의 작품으로 비올라만이 가질 수 있는 컬러를 보여준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박준영 바이올린독주회

— 6월 30일 예술의 전당

매릴랜드주립대에서 연주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준영(기악93-97 한양대 강사)동문이 6월 30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연다.

이날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차이콥스키, 스트라빈스키,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 등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을 선사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않고 꼼꼼하고 정밀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인간 李健熙’의 실체를 형성한 생애 전반을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휴먼앤북스刊·값20,000원〉

■ 스무살, 인문학을 만나다

— 서울대 인문대학 지음



‘인문학’을 둘러싼 사회의 담론들(위기론부터 실용론까지)을 보면서 인문학의 성격 및 사회적 역할

에 대해 고민해 온 모교 인문대학의 성찰이 낳은 결과물이다.

이 책은 인문학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연구자들의 특이성을 살려서 실제 인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는 인문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사례와 성과를 쉽게 풀어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 독자들 자신이 인문학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접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획했고, 이 기획의도 아래 모교 인문대학 1백70여 명의 교수들 중 먼저 24명의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를 대중적으로 풀어 담아내기 위해 이르렀다. 〈그린비刊·값15,000원〉

우리는 ‘야스쿠니’, ‘일본시스템’, ‘전황’, ‘자민당’과 같은 말에서 일본의 보수를 상기한다. 보수표상은 일본사회의 보수성이 지닌 일반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매개일 수 있다. 표상론은 현상의 서술이나 기술적 분석에 치우친 일본 연구에 새로운 시선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책은 보수 표상이 생산과 유통, 재현과 전승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후 일본사회에서 작동하는 역할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준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5,000원〉

■ 이견희 스토리

— 李慶植 지음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 연극 ‘춤추는 시간 여행’, 드라마 ‘선감도’ 등의 대본을 쓴 李慶植(경영80-84)동문이 삼성전자 李健熙 회장의 생애와 리더십을 다뤘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기업인 가운데 한 사람인 李健熙회장의 생애를 시기별로 면밀히 추적하며, 李健熙리더십을 규명하는 최초의 시도이다. 극과 극을 달리는 세간의 평가들에 한쪽으로 편향하지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은 계속됩니다

<참여 기회 놓치지 말고 서두릅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20억원
△김종섭(사회사업66-70)
◆15억원
△故박관호(화학교육51줄)
·신명규(생물교육48-54)
◆10억원
△강신호(의학46-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구평희(정치학47-51)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정식(전자공학48-56)
△김형주(토목공학46-50)
△박호전(경영학62-66)
·김영희(작곡62-66)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윤세영(행정학56-61)
△이준용(경제학56-60)
△정계영(상학61-66)
△정팔도(AIP 1기)
·이지행
△홍성대(수학57-63)
◆5억원
△김주진(법학54입)
△조기호(화학교육54-58)
·이영자(생물교육56-60)
◆3억원
△김병순(AMP 4기)
·이지호(의학77-83)
△이길여(의학51-57)
△정석규(화학공학48-52)
△허남각(경제학56-60)
◆2억원
△남정현(건축학57-61)
△손경식(법학57-61)
△이종기(경영학69-73)
△이준행(섬유공학48-54)
△장용택(약학55-61)
△장학순(토목공학46-50)
△조필재(조선항공46-50)
◆1억5천만원
△故김도창(법학43-47)
·목춘5부자
◆1억3천5백만원
△장병덕(화학교육53-57)
◆1억2천만원
△엄병윤(외교학60-64)
◆1억1천1백20만원
△미술대학동창회
◆1억1천만원
△성백전(토목공학52-56)
·김안순(화학공학54-58)

△수학과동창회
◆1억30만원
△박성훈(기계공학58-63)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곽동현(법학61-65)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故김영경(기계공학52-56)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상용(건축학52-57)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줄)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명윤(보대원74-76)
·이행자(보대원69-71)
△박실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변주선(영어교육60-64)
△서정화(법학51-55)
△故손치무(대학원70줄)
△안성철(행정학58-63)
·손윤숙
△故양은숙(간호학51-54)
△故오영현(섬유공학67-71)
·추경옥
△오홍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상범(법학53-57)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정상(상학59-65)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세일(전기공학59-63)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윤환(임학56-62)
△정중시(화학공학72-76)
△조경일(약학64-68)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옥(원예학83-87)
△보건대학원동창회
◆6천만원
△김윤택(경대원68-70)
△이창원(법학55-60)
△화학과학동창회
◆5천5백만원
△농대 그린장학회

◆5천2백만원
△이현조(철학52-57)
◆5천50만원
△하상완(치의학64-70)
◆5천30만원
△이중현(경제학59-65)
·신갑순
◆5천10만원
△박남식(SCS 2기)
◆5천만원
△강인구(수의학59-64)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종기(생물교육51-55)
△김중서(경제학58-63)
△김중현(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박주탁(무역학69-74)
△손일근(법학51-64)
△노만수(의학72-78)
·송경희(식품영양74-78)
△안 훈(수의학53-57)
△오인석(행정학58-62)
△유종해(법학50-54)
△이도경(농학56-63)
·이찬진(기계공학84-89)
△이순석(약학61-65)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정원(자원공학67줄)
△이운주(의학81-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원규(농생물학58-63)
△이재원(상학55-59)
△이종대(천문기상69줄)
△이형도(화학공학61-67)
·박호순(영어교육66-70)
△정대영(경제학51-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故하권익(의학57-63)
△하부열(경영학74-78)
△허병하(상학58-62)
△홍예표(치의학65-71)
△황해근(토목공학54-60)
·故이금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일산회
△한우리SJM
◆3천60만원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3천만원
△강신혁(문리66-73)
△고원호(기계공학48줄)
△박홍일(영어교육60-64)
△송명호(자원공학59-65)
△심형윤(토목공학52-56)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약70줄)
△이경택(섬유공학57-61)
△이광식(약학66-70)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9)
△고은희(생물교육53-58)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故김재백(약학52-56)
△서병륜(농공학69-73)
△故윤세극(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최정길(금속공학52-56)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이재형(기계설계76-80)
·이승희(전기공학06-10)
△한규택(원자핵공73-77)
△치불회
◆1천2백만원
△강용선(치의학78-84)
△김현산(법학54-58)
△김형오(외교학67-71)
△심영보(의학55-61)
△안동일(법학59-63)
△오상호(전기공학48-55)
△이내원(화학교육58-62)
△이재철(법학70-77)
◆1천1백50만원
△천남중(자원공학65-69)
◆1천1백30만원
△신면우(의학50줄)
◆1천1백20만원
△윤충중(약학55-59)
·故이상임
◆1천1백10만원
△이홍중(역사교육54-58)
◆1천1백만원
△김상복(종교학57-63)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정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1천7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1천60만원
△박준옥(약학55-59)
◆1천30만원
△박만호(행정학57-62)
△심이택(화학공학57-63)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형하(법학74-78)
△지현택(치의학43-47)
△허성길(경제학60-64)
◆1천10만원
△이인규(지구과학59-65)



◆1천만원
△강신주(사회교육51-55)
△강용현(법학71-78)
△강행언(토목공학61-65)
△고광우(행정학53-58)
△공구영(물리교육54-58)
△권동은(F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줄)
△김백준(수학62-66)
△김병린(토목공학55-59)
△김상호(법학72-76)
△김선양(중어중문8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영재(공업화학77-81)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중(약학64-71)
△김은식(국사학73-80)
·윤영옥(생물교육72-76)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재호(생물교육53-57)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김찬욱(기계공학55-59)
△김철수(법학52-56)
△김평우(법학63-67)
△노병수(공법학83-87)
△류태환(상학48-54)
△문규철(응용화학69-73)
△문대원(경영학71-75)
△문명국(기계공학73-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덕철(기계공학57-61)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영준(상학60-66)
△박중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배명인(법학52-56)
△백사익(채광학40-42)
△변상현(의학51-57)
△서계숙(기약56-60)
△석학진(상학58-64)
△설동섭(축산학53-57)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신혜순(가정교육47-51)
△안경상(행정학57줄)
·김정애(가정교육54-58)
△양배덕(전기공학57-61)
△양성철(정치학58-64)
△엄기영(사회학70-74)
△오병제(AMP 21기)
△오용섭(임학60-66)
△유홍수(법학58-65)
△유희춘(상학49-55)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동철(토목공학78-82)
△이문한(수의학66-73)
△이병재(경대원69줄)
△이병형(화학67-71)
△이상현(정치학64-68)
△이석윤(영어영문50줄)
△이세중(행정학53-57)
△이송은(상학53-57)
△이인기(지질과학62-66)
△이재후(법학58-62)
△이전구(임학60-64)
△이종용(기계공학65-69)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장무환(경제학45-51)
△장세권(농공학70-76)
△장익용(기계공학54-58)

△장지준(의학70-77)
 △장휴동(농경제학59-63)
 △조길웅(HPM 14기)
 △조원환(AMPP 6기)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규팔(제약학70-74)
 △최남해(상학52-56)
 △최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준기(조선항공57-61)
 △추재옥(의학63졸)
 △표상기(원자력공61-65)
 △허영기(정치학44-48)
 △한창섭(정치학57-62)
 △故함인영(기계공학48졸)
 △함정호(행정학53-57)
 △허 선(정치학64-68)
 △홍순자(독어교육61-65)
 △황경로(AMP 11기)
 △항남주(물리학87-92)
 △전북지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
 ◆7백만원
 △정경모(행대원65-67)
 ◆6백만원
 △오창석(전기공학46-50)
 △이재식(교육학75-79)
 ◆5백만원
 △김영수(법학60-64)
 ·원준손(국어국문64-68)
 △박수복(농생물학56-61)
 △서립규(토목공학57-61)
 △송진해(공업교육63-72)
 △신박일(약학60-64)
 △윤성근(공업교육74-78)
 △윤순녕(간호학69-73)
 △윤익석(축산학49-53)
 △이기수(대학원70-72)
 △이윤경(간호학65-69)
 △이현구(AMP 52기)
 △정주석(법학61-65)
 △조상근(행정학69-73)
 △법대37회 동교회
 △오사카지부동창회
 △AMPFRI동창회
 △FIP동창회(김병도)
 ◆4백30만원
 △강충원(전기공학59-65)
 ◆3백90만원
 △이정식(지구과학72-76)
 ◆3백50만원
 △임정주(SPARC 11기)
 ◆3백30만원
 △김석만(화학57졸)
 △이종복(응용미술62-66)
 ◆3백10만원
 △인효석(농공학80-87)
 △최병호(화학교육57-61)
 △한규범(AMP 42기)
 ◆3백만원
 △강영현(농경제학69-76)
 △권숙일(물리학54-58)
 △권혁창(지구과학69-76)
 △김인규(정치학69-73)
 △김재울(경성법전39졸)
 △김형기(불어교육72-76)
 △박금식(화학54-58)
 △안재동(상학60-67)
 △이동수(건축학61-66)
 △이성기(행대원63-65)
 △임재주(경제학55-59)

△정영채(수의학56-60)
 △하재규(농학53-57)
 △황선용(사회교육57-61)
 ◆2백50만원
 △김혜경(생물교육70-74)
 △홍순명(축산학68-72)
 ◆2백30만원
 △신성우(AMP 32기)
 △이준형(GLP 11기)
 ◆2백만원
 △나정우(농공학72-77)
 △문창국(정치학68-72)
 △故박태원(정치학46-50)
 △성기학(무역학66-70)
 △심상우(축산학57-61)
 △오복동(법학57-63)
 △유지열(외교학84-88)
 △윤정일(교육학62-66)
 △이경렬(응용미술69-73)
 △이원태(농경제학64-68)
 △이원환(토목공학49-53)
 △이종순(법학57-61)
 △이흥구(법학53입)
 △이희호(교육학46-50)
 △임규운(행정학53-57)
 △정낙찬(서양사학9-73)
 △정용인(법학60-64)
 △최창식(의학54-60)
 △한영국(경제학50-54)
 △허영호(전자공학71-75)
 △홍석준(사회학73-77)
 △황선태(법학66-70)
 △황의인(법학74-78)
 ◆1백80만원
 △노 영(의학70-77)
 ◆1백73만원
 △최인갑(금속공학57-62)
 ◆1백50만원
 △곽 승(화학공학59-63)
 △김건호(수의학70-74)
 △윤옥영(수학58-61)
 △이기남(수학67-71)
 △이진호(화학공학85-89)
 △정성진(법학58-63)
 △조귀장(사법학86-90)
 ·김주영(지리학92-97)
 △조현래(대학원75입)
 △채규대(경제학56-60)
 ◆1백40만원
 △이규대(AIP 36기)
 △이병상(사회학61-65)
 ◆1백30만원
 △김영근(법학57-59)
 △김종철(치의학71-77)
 △김진익(법학55-60)
 △문일환(치의학65-71)
 △양동관(법학67-71)
 △이응우(공업교육64-68)
 △이태형(상학59-63)
 △임한조(물리학67-71)
 △정휘위(법학62-66)
 △조병철(섬유공학59-65)
 △최동식(법학76-80)
 △최명재(상학48입)
 △추호석(경영학69-73)
 △현전옥(법학72-76)
 ◆1백23만4천5백67원
 △김성수(농업교육63-67)
 ◆1백23만원
 △홍정식(사회교육52-56)
 ◆1백21만원

△박정식(약학57-61)
 ◆1백20만원
 △강효식(치의학57-61)
 △김승환(상학67-71)
 △김영도(축산학68-75)
 △김용술(경제학56-62)
 △김주현(의학65-71)
 △김진원(건축학68-72)
 △나명훈(의학76-83)
 △부장렬(건축학77-81)
 △송창기(중어중문57-62)
 △이갑노(의학65-71)
 △이계홍(농공학56-62)
 △이상건(섬유공학74-78)
 △이정우(AMPFRI 17기)
 △이창건(전기공학49-54)
 △조용국(사회학66-70)
 △차발보(의학53-59)
 △황근영(생물교육50-54)
 ◆1백15만원
 △이원영(ACAD 11기)
 ◆1백14만원
 △故남기호(상학56-62)
 ◆1백13만원
 △홍성욱(GLP 3기)
 ◆1백12만원
 △이상훈(법학60-64)
 ◆1백10만원
 △김 현(법학76-80)
 △김금림(약학62-66)
 △김기섭(정치학69-73)
 △김기영(ACAD 49기)
 △김도현(대학원74-76)
 △김동만(GLP 15기)
 △김선복(건축학62-66)
 △김지호(화학공학55-59)
 △명동근(경제학45-52)
 △문철환(상학56-60)
 △민미란(국악73-77)
 △박영원(지리학74졸)
 △박창순(기계공학64-68)
 △백 철(상학56-61)
 △백낙운(독어독문56-60)
 △변재용(토목공학75-81)
 △송경희(국악59-63)
 △신동승(법학79-83)
 △원우현(행정학61-65)
 △유종일(신대원72-74)
 △유해덕(법학53-57)
 △이경보(토목공학46-50)
 △이근남(불어불문68-72)
 △이두현(행대원74졸)
 △이명훈(농경제학69-73)
 △이정자(국어국문50졸)
 △이종팔(경영학76-80)
 △전계묵(금속공학56-61)
 △전영철(미학53입)
 △조준래(AMPFRI 12기)
 △지근진(농공학58-64)
 △최연근(중어중문67-71)
 △허신행(농경제학62-66)
 △홍성완(토목공학62-66)
 ◆1백5만원
 △장경만(의학80-87)
 ◆1백만원
 △강구선(광산학63-67)
 △강규석(물리교육58-62)
 △강덕수(GLP 8기)
 △강성수(섬유공학57-61)
 △강성현(치의학69-75)
 △강영복(상학51-55)

△강원일(행정학59-63)
 △강정일(농경제학64-68)
 △강종표(외교학76-83)
 △강홍섭(화학공학59-63)
 △고 건(정치학56-60)
 △고병우(경제학52-56)
 △고의식(수의학56-60)
 △고재선(섬유공학52졸)
 △고호근(AMP 58기)
 △구재철(의학78-84)
 △권광중(법학61-65)
 △권순철(전자공학83-85)
 △권이혁(의학41-47)
 △김경동(사회학55-59)
 △김교성(전기공학51-55)
 △김국일(토목공학63-68)
 △김규복(법학69-73)
 △김규형(약학53-57)
 △김기광(화학교육64-71)
 △김기수(행정학47-51)
 △김노수(섬유공학45-52)
 △김달식(법학53-57)
 △김덕영(토목공학45-47)
 △김덕원(수의학50-54)
 △김덕중(외교학71-75)
 △김도연(행정학58-63)
 △김동찬(생물교육51-55)
 △김명자(화학62-66)
 △김방연(상학52-56)
 △김상원(농경제학52-56)
 △김석건(농경제학50-55)
 △김석기(행정학64-68)
 △김석동(농학62-70)
 △김석준(기계공학72-76)
 △김승권(기계공학68-72)
 △김연호(영어교육67-75)
 △김영기(법학54-58)
 △김영배(농공학78-85)
 △김영수(경제학58-62)
 △김영일(법학60-64)
 △김영재(법학57-62)
 △김용식(건축학70-74)
 △김용운(치의학62-68)
 △김용찬(농화학57-61)
 △김우동(계산통계72-79)
 △김유경(SPARC 2기)
 △김윤재(상학54-58)
 △김익모(AIP 23기)
 △김인중(법학56-60)
 △김일환(전문기상64-72)
 △김재락(법학78-82)
 △김정일(금속공학58-64)
 △김종국(농화학63-70)
 △김종욱(경제학58-62)
 △김주용(전기공학58-63)
 △김준말(영어교육55-59)
 △김중기(경제학54-58)
 △김진세(법학61-69)
 △김진우(약학54-58)
 △김진호(법학57-61)
 △김창국(법학56-60)
 △김창순(경성여사법43입)
 △김철빈(토목공학67-71)
 △김태현(제약학71-75)
 △김태흥(화학교육71-79)
 △김풍오(원자력공68-72)
 △김학근(약학51-55)
 △김학원(법학66-70)
 △김현재(법학56-61)
 △김형욱(AIP 37기)
 △김형진(기계공학51-55)

△김혜성(식품영양70-74)
 △김호룡(법학48-52)
 △김홍석(물리학70-74)
 △김홍중(수학74-78)
 △김화중(간호학63-67)
 △김환수(법학52-56)
 △김효종(법학61-65)
 △김후란(가정교육53입)
 △나도선(약학67-71)
 △나종택(기계공학53-57)
 △노승행(법학58-63)
 △노정익(섬유공학46-50)
 △노화준(섬유공학61-65)
 △류종묵(상학59-65)
 △류철호(토목공학67-71)
 △마인경(지리교육56-60)
 △맹호근(법학61-65)
 △문광순(광산학60-64)
 △박국양(의학75-81)
 △박석흥(불어불문63-67)
 △박성숙(의학65-71)
 △박성철(법학75-79)
 △박성태(의학58-64)
 △박순익(치의학66-72)
 △박순호(AMP 43기)
 △박승근(조선항공63-67)
 △박승용(영어교육76-80)
 △박양수(영어교육55-59)
 △박영숙(CHCN 3기)
 △박영철(AMP 40기)
 △박인원(의학76-83)
 △박재형(의학66-72)
 △박종찬(공업교육71-76)
 △박종철(물리학61-66)
 △박준서(법학58-64)
 △박해룡(상학58-63)
 △박향숙(응용미술58-62)
 △박홍일(영어교육60-64)
 △배기선(AIP 25기)
 △배상경(경제학56-61)
 △배승환(기계공학58졸)
 △배영한(상학49-58)
 △배인준(철학70-74)
 △백행배(화학공학47-53)
 △변영삼(금속공학77-81)
 △변영진(토목공학67-71)
 △변종문(공업교육72-76)
 △서광벽(재료공학73-77)
 △석준형(물리학67-71)
 △설흥기(대학원07-09)
 △설희순(기계공학62-66)
 △손두식(임학57-63)
 △손원주(화학공학55-59)
 △손환규(농업교육64-68)
 △송병락(경제학59-63)
 △송사일(농공학80-84)
 △송언기(AMP 28기)
 △송인상(경성고상35졸)
 △송종환(외교학64-68)
 △송호룡(AIC 19기)
 △신명중(법학80졸)
 △신수정(기약59-63)
 △신용삼(경영학73-77)
 △신원식(행정학57-61)
 △신정균(농경제학54-58)
 △신필재(약학55-59)
 △신현길(응용물리65-69)
 △신희명(물리교육49-54)
 △신희섭(의학68-74)
 △심장수(법학70-74)
 △심재갑(행정학52-56)

△심한배(공업화학71-76)
 △안상돈(행정학59-63)
 △故안재환(공예92-04)
 △안치득(전자공학76-80)
 △안휘준(고고인류61-67)
 △양해준(식품공학82-86)
 △양호석(농화학57-63)
 △염영섭(화학66-70)
 △염준호(기계항공95-99)
 △여운관(금속공학53-57)
 △오경화(의류학81-85)
 △오세종(경제학61-65)
 △오윤덕(행정학61-65)
 △오인석(전자공학57-62)
 △오진환(법학75-79)
 △오태환(법학53-57)
 △우병규(정치학51-55)
 △우세홍(생물교육60-65)
 △우완식(경제학57-61)
 △우종호(중어중문60-64)
 △우효섭(토목공학72-76)
 △유가영(기약86-90)
 △유광식(화학58-62)
 △유위종(농경제학72-80)
 △유제운(조선항공51졸)
 △유진무(상학62-66)
 △유필상(전기공학66-73)
 △윤근환(농학50-54)
 △윤용철(경영학83-88)
 △윤용혁(독어교육60-64)
 △윤원진(HPM 6기)
 △윤재석(화학교육71-75)
 △윤정철(의학59-65)
 △윤정혜(화학교육59-63)
 △윤충섭(농공학55-61)
 △윤홍식(물리교육56-60)
 △이 진(외교학60-64)
 △이경재(화학59-63)
 △이계관(약학70졸)
 △이광진(법학77-81)
 △이국진(경영학77-81)
 △이규호(약학60-65)
 △이근수(신대원69졸)
 △이기봉(교육심리54-58)
 △이기준(경제학55-59)
 △이기춘(가정교육61-65)
 △이돈구(임학65-69)
 △이동규(전문기상65-74)
 △이동녕(금속공학57-61)
 △이미현(법학79-83)
 △이병목(의학54-60)
 △이병일(농학57-63)
 △이병주(의학61-67)
 △이삼휘(농화학66-70)
 △이상욱(경영학86-90)
 △이상필(치의학70-76)
 △이석원(AIP 36기)
 △이성호(농공학71-75)
 △이수웅(전기공학88-92)
 △이순형(의학56-62)
 △이승관(금속공학64-71)
 △이승구(계산통계75-79)
 △이승립(국어교육66-70)
 △이신자(응용미술50-55)
 △이영상(상학51-55)
 △이영상(상학59-64)
 △이용희(간호학75졸)
 △이우연(정치학45-49)
 △이우진(농화학64-68)
 △이의갑(영어교육70-75)
 △이인혁(섬유공학54-58)

△이일훈(상학55-60)
△이장무(기계공학63-67)
△이재원(기약53-57)
△이재원(법학77-81)
△이정국(토목공학62-66)
△이정숙(응용미술65-69)
△이정우(독어교육64-71)
△이정인(광산학59-63)
△이종욱(의학57-63)
△이주한(역사교육53-57)
△이중환(의학51-57)
△이진방(경영학67-71)
△이창호(기계공학55-61)
△이철영(상학63-68)
△이철주(상학59-65)
△이충웅(통신공학54-58)
△이학숙(회화54-58)
△이현식(화학73-78)
△이현재(경제학48-53)
△이형균(정치학59-64)
△이형우(수의학51-55)
△이호인(응용화학66-70)
△이희숙(영어교육61-65)
△임광환(농경제학55-59)
△임미영(회화77-81)
△임승빈(건축학67-71)
△임아균(약학61-65)
△임종두(상학61-68)
△장권봉(응용미술56-62)
△장삼진(화학공학51-55)
△장성원(영어교육57-61)
△장원갑(기계공학63-67)
△장윤석(법학68-72)
△장은식(치의학89-93)
△장찬기(HPM 8기)
△장철식(섬유공학49-55)
△장해창(법학74-78)
△장혜실(성악69-73)
△전병일(영어교육66-73)
△전정구(경제학51-56)
△전종갑(천문기상64-68)
△전준수(토목공학61-65)
△전팔근(영어교육47-52)
△정광섭(상학66-74)
△정광현(독어교육71-78)
△정근화(물리교육63-70)
△정명희(의학65-71)
△정민섭(임학59-63)
△정병일(독어독문78줄)
△정병해(정치학49-53)
△정상조(행정학57-62)
△정소성(불어불문64-69)
△정완호(생물교육58-63)
△정우식(항공공학80-84)
△정웅진(상학63-67)
△정원식(교육학48-54)
△정은구(법학58-64)
△정경길(행정학61-65)
△정효섭(사회학59-65)
△정흥숙(가정교육59-63)
△정희준(법학57-61)
△조규광(정치학48줄)
△조대연(법학69-73)
△조동진(행정학63-67)
△조무제(사대원65-67)
△조상태(수의학71-75)
△조성근(행대원61줄)
△조영찬(중어중문74-78)
△조완규(생물학48-52)
△조장환(농학53-60)
△조현래(사회사업73-77)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주근원(경성제대43줄)
△주남철(대학원69-77)
△주영숙(치의학55-59)
△주정엽(경영학95-02)
△지상구(약학54-58)
△지철근(전기공학45-51)
△진성박(치의학75-81)
△진영춘(토목공학67-74)
△진홍일(외교학62-66)
△차원갑(화학공학48-53)
△최 연(섬유공학68-72)
△최광현(무역학62-67)
△최병순(화학교육69-74)
△최병주(생물교육56-60)
△최영룡(법학78-82)
△최우철(의학82-88)
△최종택(물리학52-56)
△최준은(의학77-83)
△최종태(행대원66-68)
△최창진(약학61-65)
△최항순(조선공학65-70)
△최효열(기약69-73)
△탁미선희(치의학76-82)
△하두봉(대학원56-58)
△한 영(치의학79-85)
△한규록(의학80-86)
△한정섭(건축학48-52)
△한철주(의학78-84)
△함종찬(농업교육63-70)
△허정국(치의학55-59)
△현덕성(약학66-70)
△현임종(상학56-60)
△홍동선(임학56-61)
△홍상희(응용물리65-72)
△홍성오(생물교육50-54)
△홍순겸(AIP 5기)
△황병선(외교학64-71)
△황성재(법학72-76)
△황승기(지구과학69-76)
◆84만원
△오하이오지부동창회
◆80만원
△김재현(경제학69-73)
△문영학(토목공학65-70)
△박남훈(외교학68-75)
△서병규(행대원88-92)
△어 당(섬유공학68-72)
△우두현(상학61-67)
△유승규(기계설계76-80)
△이인재(지질과학64-72)
△장영일(치의학64-70)
△정상명(행정학68-72)
◆70만원
△서유현(의학67-73)
△이병효(공업교육63-67)
△이윤하(제약학77-85)
△정필현(의학82줄)
△하순봉(독어교육60-64)
◆60만원
△김신원(응용화학64-72)
△부영욱(HPM 13기)
△안재휴(광산학52-56)
△안태준(기계공학83-91)

△여인철(조선공학75-79)
△유종상(중어중문66-70)
△이범구(물리학69-73)
△이상용(의학64-70)
△이용팔(HPM 13기)
△이정구(의학59-65)
△이찬구(상학56-61)
△이태영(농경제학54-58)
△이현구(화학공학58-62)
△정태봉(작곡72-80)
△조달호(AMP 7기)
△조양래(기계공학64줄)
◆58만원
△김상조(약학54-58)
△이시정(생물교육54-58)
◆50만원
△강 민(금속공학70-74)
△강규범(AMP 62기)
△강승호(수학교육67-71)
△강윤걸(기계공학53-57)
△강인식(농공학79-83)
△강일우(섬유공학71-75)
△강종호(농학60-64)
△곽소진(신대원70줄)
△곽언구(AMP 34기)
△구분무(응용미술60-66)
△권기술(AMP 9기)
△김 농(토목공학69-76)
△김 신(경영학75-79)
△김건중(정치학66-70)
△김광환(행대원68줄)
△김기석(법학59-64)
△김남석(기계공학72-79)
△김당배(경영학70-77)
△김병관(농공학76-80)
△김봉근(국어교육60-64)
△김상도(조선공학78-82)
△김세겸(농공학59-63)
△김수학(물리학53-57)
△김순철(국사학75-82)
△김용주(화학공학73-77)
△김용진(대학원80줄)
△김정근(수의학50-59)
△김정란(불어불문65-69)
△김정우(상학67-71)
△김정욱(금속공학58-64)
△김종호(SGS 4기)
△김지영(식품영양69-73)
△김진국(정치학78-85)
△김진옥(농학52-56)
△김차서(AMP 19기)
△김조일(식품영양78줄)
△김항원(사회교육65-72)
△남시욱(정치학54-58)
△남중희(잠사학56-60)
△류재택(역사교육66-73)
△문학모(경제학58-64)
△민병전(정치학52-56)
△박 찬(정치학75-79)
△박건호(상학59-63)
△박순철(사법학83-87)
△박시우(제약학69-73)
△박양제(약학48-52)

△박용희(상학53-57)
△박일재(화학공학78-82)
△박철홍(AMP 51기)
△박태근(토목공학55-59)
△반성환(농경제학50-55)
△배기성(독어독문68줄)
△부경생(농생물학60-64)
△손계욱(금속공학70-74)
△손문자(응용미술62-66)
△송대원(사법학87-92)
△송임숙(생물교육55-59)
△승익상(의학61-67)
△신동우(언어학71-75)
△신정택(AMP 48기)
△신철영(기계공학70-78)
△신한우(사회교육50-55)
△심문섭(조소61-65)
△양이훈(물리학65-74)
△양홍룡(영어교육71-79)
△염조일(ASP 15기)
△오규원(행정학65-69)
△오병권(조소66-70)
△오자복(행대원82줄)
△오제국(정치학75-79)
△오지연(독어교육87-91)
△우경자(가정교육61-65)
△위정일(의학63-69)
△유석기(경제학57-61)
△유성삼(기계공학59-65)
△유원영(상학57-63)
△유창용(의학82-88)
△유형식(치의학59-65)
△윤 문(광산학61-67)
△윤 백(기계공학78-82)
△윤석용(채광학50-54)
△윤영출(응용미술82-86)
△이강소(회화61-65)
△이경국(농학78-82)
△이근석(산업공학72-76)
△이민섭(치의학57-61)
△이상준(기계공학76-80)
△이상학(경제학59-63)
△이순원(가정교육54-58)
△이신기(농학58-64)
△이옥현(제어계측85-89)
△이운주(상학63-70)
△이은주(간호학90-94)
△이찬영(상학55-59)
△이춘구(생물교육54-58)
△이춘배(의학83-89)
△이평우(불어불문48-56)
△이형직(상학67-71)
△이홍석(농학52-56)
△인정현(법학54-58)
△임병주(금속공학52-56)
△임상규(금속공학68-72)
△임성규(법학76-80)
△장낙순(SGS 10기)
△장병규(섬유공학54-60)
△장순근(지질과학65-69)
△장희수(AMP 45기)
△정성호(사법학81-85)
△정이조(ACAD 48기)

△정인조(금속공학71-75)
△정태규(수의학56-60)
△정태원(농경제학57-61)
△조남혁(섬유공학57-61)
△조덕찬(상학53-57)
△조수호(회화47입)
△조영욱(가정교육58-62)
△조용철(종교학64-68)
△주종남(기계공학75-79)
△지형준(약학53-57)
△채경욱(경영학86-90)
△채기원(수학53-59)
△채방은(기계공학65-70)
△최동수(경영학65-70)
△최병선(조선항공60-64)
△최순철(치의학73-79)
△최운열(경영학70-74)
△최은규(국어교육78-82)
△최창호(사법학84-88)
△최현수(전기공학76줄)
△최흥락(경제학57-61)
△한득주(행정학59줄)
△한상복(물리학59-63)
△한정길(농생물학63-70)
△함준표(경제학79-86)
△홍석주(경영학72-76)
△홍선표(기계공학53-57)
△황건호(경영학70-74)
△황인경(식품영양70-74)
△황정자(가정교육63-67)
△황현익(교대원65줄)
◆45만원
△오봉국(축산학48-52)
◆40만원
△강만식(생물학51-55)
△곽노희(기약81-85)
△김 유(약학60-64)
△김광현(의학66-72)
△김문기(기계설계77-81)
△김병익(정치학57-61)
△김적승(사대원69줄)
△김정묵(농생물학59-65)
△김주영(사법학83-87)
△김창윤(수의학53-57)
△김형선(법학57-62)
△노선호(AMP 24기)
△목요상(법학55-61)
△문성철(상학54-58)
△문양수(언어학59-63)
△문창환(기계설계75-79)
△민경식(전기공학50-55)
△박우병(광산학52-56)
△박창부(AMP 61기)
△박창진(보대원70-72)
△사공일(상학58-64)
△서원수(농경제학58-64)
△송복희(응용미술74-78)
△신동수(국사학82-89)
△여효성(대학원03-05)
△연대성(영어교육60-64)
△우보명(임학57-61)
△유기수(물리학53-57)
△유동립(공업교육68-72)

△이계욱(무역학62-67)
△이기상(의학73-79)
△이대원(상학59-65)
△이도천(임학55-60)
△이부영(의학52-59)
△이영욱(법학52-56)
△이재숙(국악59-63)
△이재원(법학76-80)
△이종휘(경영학66-70)
△이철근(조선항공58-64)
△이현정(임학64-71)
△이혜전(기약79-83)
△이희달(금속공학70-77)
△이희주(가정교육56-60)
△이희주(치의학67-73)
△임갑혁(공업교육69-77)
△임성수(치의학60-66)
△임재원(국악76-80)
△임창무(경제학53-57)
△장만화(경제학56-61)
△장정환(정치학56-63)
△전광우(경제학69-73)
△정강주(체육교육69-74)
△정건용(치의학52-57)
△정문성(의학78-84)
△정송학(ACAD 54기)
△정수현(교육학80-84)
△정원박(대학원74-81)
△주영재(공업교육72-76)
△최상태(행정학58-64)
△최성규(국사학92-99)
△한광세(법학60-64)
◆35만원
△김정구(의학70-76)
△모영일(AFB 5기)
△우성규(사학63-70)
〈이상 2005년 10월 1일
부터 2010년 5월 19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30만원
△간영석(법학57-61)
△강 건(약학60-66)
△강남원(기계설계75-81)
△강대운(회화55-60)
△강민수(법학65-69)
△강명영(AIP 20기)
△강민창(신대원68-70)
△강부건(건축학62-69)
△강수현(상학58-62)
△강승렴(지리학62-66)
△강신우(법학79-83)
△강신일(의학58-64)
△강신자(작곡56-60)
△강영삼(사회교육59-63)
△강의철(건축학73-77)
△강진영(의학67-73)
△강창수(조선공학48-53)
△강태석(상학51-55)
△강태형(법학57-61)
△강해석(제약학71-78)
△강호익(토목공학58-64)
△고건성(의학67-74)
△고명삼(전기공학51-55)
△고상언(AIP 11기)
△고승혜(회화66-70)
△고영근(농경제학66-70)
△고영희(건축학77-81)
△고재홍(자원공학75-82)
△고정택(외교학62-66)

△고충삼(행대원63-65)
△공영석(약학57졸)
△공영주(약학59-63)
△곽광준(SGS 14기)
△곽노준(법학74-78)
△곽영철(농공학59-65)
△곽현수(법학72-76)
△구본무(농공학62-66)
△구성희(보대원67-69)
△구인환(국어교육50-54)
△구자영(조선항공54-58)
△구자희(법학77-83)
△국전표(토목공학60-66)
△권기진(HPM 8기)
△권문구(법학60-66)
△권영수(경영학75-79)
△권오균(경제학49-53)
△권오득(사회사업63-68)
△권오윤(법학56-60)
△권오준(임학65-69)
△권장혁(항공공학67-71)
△권태웅(경제학58-64)
△금명자(간호학76-80)
△금종해(수학76-80)
△김 광(농공학63-68)
△김경화(건축학65-69)
△김관영(화학교육55졸)
△김광순(약학59-63)
△김광식(화학59-63)
△김광호(농학61-65)
△김광희(작곡68-72)
△김구수(의학71-77)
△김구웅(수학57-63)
△김권택(법학63-67)
△김규상(화학57입)
△김규호(약학64-72)
△김근배(조선항공64-68)
△김금환(건축학72-77)
△김기락(의학68-76)
△김기주(사학54-58)
△김기중(상학57-61)
△김남수(물리학73-77)
△김남용(축산학53-57)
△김남조(국어교육47-51)
△김대기(외교학65-69)
△김대환(기약89-93)
△김덕수(섬유공학51-55)

△김덕창(중어중문59-63)
△김동길(화학교육57-61)
△김동녕(경제학64-68)
△김동암(축산학52-56)
△김동완(행대원83-88)
△김동원(법학52-56)
△김동철(독어독문78-82)
△김만경(경제학53-57)
△김만복(법학66-70)
△김명근(건축학53-57)
△김명년(토목공학53-57)
△김명린(조선항공61-65)
△김명석(요업공학74-79)
△김무현(건축학61-65)
△김미리(간호학55-58)
△김민영(사학68-71)
△김병국(의학64-70)
△김병기(광산학65-69)
△김병동(농학62-66)
△김병준(지구과학68-72)
△김병찬(의학53-60)
△김병찬(치의학69-75)
△김복순(간호학55졸)
△김복승(APC 3기)
△김보홍(치의학56-60)
△김부성(지리학73-77)
△김상국(농학51-56)
△김상근(법학78-82)
△김상기(국어교육65-69)
△김상진(기계공학63-68)
△김상현(ACAD 27기)
△김상호(중어중문58-62)
△김상희(법학69-73)
△김서령(수학교육78-82)
△김석수(자원공학77졸)
△김석웅(대학원81졸)
△김석주(조선항공48-54)
△김선양(교육학53-57)
△김선일(국어국문61-65)
△김선홍(기계공학55졸)
△김성길(법학60-64)
△김성만(금속공학57-61)
△김성수(치의학67-74)
△김성우(전기공학59-63)
△김성중(광산학59-66)
△김성진(식품영양69-73)
△김세재(동물학85졸)

△김세진(치의학67-73)
△김소함(기약77졸)
△김수관(생물교육70-78)
△김수필(경영학62-66)
△김승규(SGS 7기)
△김승호(법학62-66)
△김신택(법학57-62)
△김영규(경제학55-59)
△김영대(SGS 12기)
△김영무(법학60-64)
△김영상(법학54-59)
△김영철(건축학59-63)
△김영환(사학62-66)
△김영훈(행정학54-59)
△김완주(정치학66-70)
△김용구(농학57-61)
△김용균(법학73-77)
△김우전(AMP 7기)
△김원길(경제학61-68)
△김원동(의학63-69)
△김원배(토목공학55-59)
△김원태(법학61-65)
△김유원(신대원72-74)
△김유인(농생물학63-70)
△김윤영(치의학58-62)
△김윤종(AIP 31기)
△김응진(대학원49졸)
△김익영(행대원68졸)
△김인수(치의학47-51)
△김장연(공업화학76-80)
△김재길(법학56-60)
△김재덕(법학73-77)
△김재실(수학63-68)
△김재철(법학57-61)
△김재철(상학60-66)
△김재훈(법학76-80)
△김정근(기계공학57-61)
△김정문(지구과학70-77)
△김정민(AFB 2기)
△김정석(공예89-93)
△김정자(치의학59-65)
△김정홍(화학교육57-61)
△김정희(간호학52-55)
△김제영(건축학71-76)
△김종만(의학51-59)
△김종민(AMPP 4기)
△김종식(기계공학77-84)

△김종연(ACAD 29기)
△김종욱(섬유공학61-65)
△김종일(법학52-56)
△김종진(물리학58-62)
△김종훈(건축학69-73)
△김주봉(수학교육54-58)
△김주일(의대전문44-48)
△김주호(전기공학58졸)
△김주환(치의학47졸)
△김진동(국어국문58-64)
△김진문(경제학59-64)
△김진석(농업교육69-75)
△김진영(건축학68-72)
△김진우(경제학59-63)
△김진우(행정학57졸)
△김진철(항공공학67-72)
△김찬조(농화학49-54)
△김창복(법학51-55)
△김창성(원예학81-88)
△김창세(화학공학61-65)
△김창수(상학66-70)
△김창식(사대원67-69)
△김창호(산업공학72-76)
△김천수(생물교육63졸)
△김철수(경제학77-81)
△김철중(물리학70-74)
△김철진(법학50-58)
△김충경(약학65-69)
△김충식(독어교육60-64)
△김택현(농학65-69)
△김태두(경제학50-56)
△김태수(영어영문57-64)
△김태수(지질과학62-66)
△김태완(ACAD 44기)
△김태우(법학73-77)
△김태훈(토목공학72-76)
△김태희(금속공학65-69)
△김하준(과학교육73-77)
△김학근(법학75-79)
△김학기(농생물학65-70)
△김학순(의학74-80)
△김한길(약학59-63)
△김한주(약학57-61)
△김현수(농학55-62)
△김현순(법학54-58)
△김현욱(약학84-88)
△김형배(행정학51-55)

△김형영(경제학56-60)
△김혜삼(AMP 51기)
△김호수(금속공학63-67)
△김홍석(치의학57-61)
△김화규(물리학52-56)
△김희상(외교학69-73)
△김희수(화학교육70-75)
△김희주(의학71-77)
△나병삼(지리교육64-68)
△나형용(금속공학54-58)
△남대우(경제학58-64)
△남송현(의학70-78)
△남승우(치의학63-69)
△남창렬(화학교육65-69)
△남해숙(회화62-66)
△노갑기(영어교육66-70)
△노경래(법학61-65)
△노연상(화학공학70-74)
△故노형민(기계설계77졸)
△노희찬(ACAD 33기)
△도준호(철학61-65)
△류시열(법학57-61)
△류해주(상학65-69)
△류희근(HPM 4기)
△맹로승(법학65-69)
△문동민(화학공학57-61)
△문병원(잠사학55-60)
△문영도(경제학50-59)
△문운용(상학60-65)
△문원호(약학65-69)
△문철명(축산학60-68)
△문현일(AIC 6기)
△문형근(대학원79-81)
△문홍장(경영학74-78)
△민병덕(치의학64-70)
△민수광(법학60-64)
△민신홍(약학60-64)
△민영기(물리학57-61)
△박 실(정치학58-63)
△박강문(국어교육63-68)
△박경석(사학55-59)
△박경엽(전기공학75-79)
△박광태(산업공학80-84)
△박국수(법학67-71)
△박귀원(의학66-72)
△박금철(화학공학48-51)
△박금환(생물학59-98)

△박길상(사회학72-76)
△박동서(토목공학61-65)
△박동우(농공학70-74)
△박동정(전기공학54졸)
△박동현(의학70-76)
△박란정(가정관리80졸)
△박만기(약학59-63)
△박문갑(의학46-53)
△박문희(간호학59-63)
△박병대(법학76-80)
△박상균(치의학66-73)
△박상동(HPM 2기)
△박상용(의학57-63)
△박성권(수리학74-78)
△박성동(경제학57-61)
△박세만(경제학45-49)
△박송자(화학교육63-67)
△박수기(상학54-58)
△박순국(사회사업59-63)
△박순조(임학55-61)
△박재호(회화59-63)
△조종수(잠사학66-70)
◆20만원
△김신현(회화58-62)
△김은지(공예95-00)
△백애경(회화68졸)
△송용성(조소95-02)
△엄용우(조소97-04)
△전하창(약학67-71)
△정정희(조소49-52)
◆11만원
△최완규(미승인 과정)
◆10만원
△김시용(응용미술56-60)
△노신욱(기약04-08)
△민병욱(기계공학50-54)
△민태기(대학원85입)
△안성훈(FIP 1기)
△유병수(회화58-63)
△윤연선(서양화91-95)
△이대건(경영학03-10)
△이상길(교대원70-72)
△정대유(응용미술63-67)
△최영인(공예85-89)
〈이상 2010년 4월 27일
부터 5월 19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0년 4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10. 4. 21~5. 6)·일반(10. 2. 26~5. 6)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孫京植= 1백만원

관 악 회

△이 사 申明珪= 30만원

상임이사

△鄭之碩 약대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김현옥 약대84
△정수영 공대00

(일반) △고유강 법대05

△구재관 AIP40 △권영순 법대51
△권오영 생활98 △권용웅 농대60
△김관영 사대48 △김규동 공대99
△김기덕 농대77 △김대희 농대89
△김덕중 사회04 △김동현 자연06
△김두진 문리65 △김문수 법대66
△김삼미 약대85 △김상현 의대87
△김수진 의대80 △김승현 치대98
△김용갑 법대87 △김우영 공대66
△김중화 법대55 △김주용 공대58
△김중술 문리59 △김철민 공대89
△김태형 AMP67 △김혁수 AMP67
△김휘중 AIP41 △김희재 공대75
△노수진 자연03 △노영희 AIP40
△류재욱 공대86 △류희철 의대83
△문정호 行院82 △민진기 AIP39
△박동성 공대57 △박만식 SPAR2
△박성출 상대60 △박세형 인문75
△박수복 법대77 △박재근 AMP64
△박준춘 AIP41 △방수영 保院02
△배성근 문리56 △백원필 공대78
△성철용 사대56 △손종호 인문69
△심교언 공대89 △심지민 사회01
△안건용 농대52 △안형균 공대05
△양영종 사대75 △어종수 수의00
△오복자 大院89 △오일환 상대53
△원성혁 법대99 △유래형 AMP17
△윤용복 인문84 △윤혜성 음대88
△이강기 AIP37 △이경화 사대86
△이국동 ALP6 △이대형 공대61
△이동진 인문81 △이두리 의대06
△이문환 수의66 △이봉형 인문80
△이선원 미대75 △이성재 공대75
△이숙희 AIC28 △이영남 생활73
△이영성 사회79 △이우식 GLP15
△이유현 치대00 △이은희 AFP4
△이인모 농대65 △이재동 ACAD66
△이재일 공대05 △이충양 문리65
△이태로 법대50 △이해익 상대64
△이호범 생활06 △임상호 문리60
△임효빈 공대61 △장인영 경영94
△장재진 SPAR2 △장주완 HPM17

△장지언 음대05 △전해신 농대88
△정동해 의대87 △정운택 ACPM5
△정철수 사대68 △조희경 사대86
△최병두 문리54 △최성욱 공대82
△최윤경 미대06 △최은경 간호02
△최정일 문리59 △하종원 의대79
△한명숙 미대67 △한병익 공대77
△한지상 경영05 △홍진명 의대06
△홍창완 공대77 △황성택 경영86

이 사

◆공대 △김재만74 △남인희77
△최정혜86
◆농대 △박영문71 △이재영66
◆문리대 △김상진71
◆법대 △이건개59
◆상대 △김영춘71
◆치대 △성백균64
◆대학원 △김문한79
◆AMP △김해삼51
◆AIP △김수영12
◆ACAD △이경우37
◆GLP △박옥영14
◆ALP △서일성6

일 반

◆인문대 △강기훈90 △강상진83
△권태인74 △김 영88 △김대환81
△김덕출81 △김동국83 △김선형84
△김용석86 △김용석95 △김우동73
△김재열91 △김학균89 △김형구73
△남창경81 △류 현94 △박용남83
△백승희83 △변우식77 △서태영74
△안재훈79 △오성민97 △윤 경81
△이건협86 △이다니엘01 △이동익98
△이상근97 △이일환73 △이주영05
△이한목72 △이흥균71 △장수현98
△장영덕78 △정말순80 △정진기86
△최완석98 △최철우87 △허나윤86
△황규학81 △황태순78
◆사회대 △김경수90 △김계수81
△김광덕82 △김대기75 △김대희81
△김세익97 △김영남86 △김용호75
△김용환78 △김은정02 △김정국89
△김호일81 △노창현87 △도종윤97
△문홍성82 △박덕환72 △박상훈87
△박전식86 △박정애89 △배세달77
△백두현82 △서병일87 △서창환83
△안근배81 △안백훈81 △엄재규87
△오경수00 △오경수00 △오남탁01
△오영환82 △오진훈01 △오현진02
△유재상04 △유조안94 △윤기현70
△윤동영79 △이 석78 △이고은04
△이동섭85 △이서화05 △이윤섭84
△이은중01 △이재열80 △이재하81
△이주홍88 △이차복87 △이철주96
△임일섭83 △임재금94 △정삼봉73
△정성훈99 △정인환06 △정현진06
△조용홍76 △주순식73 △최문박01
△최병목78 △최형근69 △추종연79

△한낙경02 △한직환82 △현무성89
◆자연대 △김경윤89 △강 향06
△강경관70 △강문기68 △김경석86
△김남우03 △김두현90 △김민수03
△김석진78 △김수정02 △김신우99
△김윤호02 △김진규84 △박용진99
△박유나96 △박찬연01 △박창희82
△박혜령00 △송효종00 △안득수02
△양용성86 △오은정82 △원유덕81
△윤석환04 △이기원77 △이대관04
△이동화83 △이명웅77 △이상규05
△이세민02 △이순열79 △이영주02
△이지희84 △임병호05 △임태순79
△장원석96 △전희진02 △조재린90
△조현진01 △최나라98 △현민아02
△홍석익83 △황열순86

◆간호대 △김명화84 △고혜명65
△길광숙58 △김순경57 △김시정95
△김영신83 △김을자64 △김정옥87
△백형자78 △신은숙65 △심중섭70
△양광희68 △오두남89 △유순애74
△이숙경84 △이연지05 △전귀능83
△정숙자60 △조결자62 △천미혜83
△한영자66

◆경영대 △고두형01 △권태균74
△김 신75 △김기영72 △김기훈02
△김대혁81 △김성민00 △김지현88
△노진만83 △모영철88 △문일재75
△박기상86 △박철희93 △방영민69
△백창기76 △변은창90 △서학수82
△손원준96 △양원덕85 △예정현85
△오진환77 △이대건03 △이상수73
△이상천72 △이상철95 △이정민04
△이진묵92 △임석우81 △장기권82
△전기환83 △전병욱82 △조규근70
△조형수99 △채훈기99 △최중현76
△최창목82 △황순배97

◆공대 △강경탁52 △김길건63
△강대룡78 △강병기51 △강수민94
△강신구53 △강우영88 △경경환72
△고석렬52 △고순민98 △고승구76
△고중명47 △고창현64 △고중준59
△고희승07 △곽두영05 △곽주원98
△곽준영99 △구교범04 △구영근70
△구영호72 △구자령82 △구정모93
△권상익91 △권성주03 △권소영52
△권순학64 △권영중74 △권오준02
△권혁선72 △김 영52 △김가형03
△김경락57 △김경민02 △김광수92
△김규남47 △김규동99 △김길호82
△김남선52 △김대웅52 △김대호68
△김돈건99 △김동건85 △김동철00
△김동현06 △김민성03 △김병만83
△김병진50 △김상규59 △김상식58
△김상환73 △김서희03 △김성관87
△김성언71 △김성연84 △김세준83
△김세진99 △김세환61 △김연식50
△김영균71 △김영문56 △김영훈99
△김용익50 △김용민66 △김원명59
△김윤제62 △김인달70 △김인석55
△김인용74 △김재용07 △김재환54
△김정섭77 △김정옥55 △김정우56

△김정희79 △김종린68 △김종명70
△김종인68 △김종철73 △김종환53
△김준현69 △김진한00 △김채식54
△김천환65 △김철순53 △김철호72
△김택환45 △김한길85 △김현국90
△김현수01 △김형태57 △김호진91
△김홍만89 △김희령86 △나인구53
△남궁석52 △남기동43 △남승윤82
△노홍조48 △두석광82 △라종민05
△미중열81 △문동민57 △문상진75
△문승현79 △문인삼55 △문제춘71
△문준영06 △민철기56 △박 찬82
△박기현65 △박동원80 △박두근53
△박민서79 △박민환98 △박병선03
△박병엽71 △박성환97 △박승균63
△박시동60 △박여종62 △박용기71
△박응준78 △박인균75 △박정대91
△박종인97 △박준수00 △박춘원49
△박한조00 △박현우53 △박현철85
△박형순60 △박화섭89 △방상구78
△방정섭62 △배성준99 △배세영02
△배준일98 △백무흠84 △백사익40
△서용윤03 △서정수98 △서정훈97
△석기룡70 △성현택95 △성호용03
△손무익68 △송병륜05 △송수영51
△송솔지05 △송주인51 △신명철97
△신인길80 △신현길69 △신현욱92
△신현택48 △심병창97 △심일보73
△심재한53 △안동만66 △안상철84
△안지혜01 △양대준92 △양동률50
△양정훈02 △염성희04 △염재성73
△오 훈95 △오동익89 △오철석55
△우종민97 △원일우75 △원준희49
△유병환56 △유상희58 △유심덕61
△유영창73 △유일상57 △유준만63
△유태용50 △육내승51 △윤 본54
△윤남하51 △윤여남00 △윤재준60
△윤준식01 △윤한상49 △윤화식68
△이경태53 △이광민57 △이광복67
△이광진69 △이근호67 △이기설47
△이기훈05 △이낙주47 △이동희85
△이두호90 △이병길59 △이복영55
△이상린55 △이상순67 △이상우04
△이선영03 △이성주98 △이성중98
△이세열78 △이승률55 △이승욱91
△이연주93 △이영민83 △이영배52
△이원희02 △이용희71 △이원구85
△이원모00 △이원일99 △이원진89
△이의남62 △이인태53 △이일환55
△이재익04 △이정우01 △이정우03
△이정우61 △이정준01 △이정태03
△이정호65 △이정훈94 △이제근56
△이종근48 △이종섭49 △이주협83
△이지원81 △이진기46 △이진혁04
△이창민02 △이창주97 △이태종77
△이필경78 △이현웅01 △이홍근65
△이화용70 △이희근55 △이희범02
△임영빈91 △임종웅99 △임주섭82
△임창우64 △임채용89 △임태원47
△임현용69 △임형준04 △장민석92
△장석호65 △장선학48 △장용재94
△장재명57 △장재일48 △장정우03

△장현봉76 △전동완56 △정규홍82
△정대환65 △정동섭64 △정백기78
△정병일50 △정영도98 △정원영48
△정인수73 △정한모01 △정현두07
△정효영90 △조국영92 △조래승56
△조사홍56 △조승우95 △조승제56
△조영근67 △조응현56 △조장하57
△조재열89 △조정상94 △주기만64
△지덕선60 △진은석91 △채규남49
△최 근02 △최영태52 △최우중02
△최의원54 △최의원54 △최인영63
△최정희93 △최종민01 △최창환91
△최창희06 △최현진04 △최환규83
△편영준77 △하경표89 △한대희92
△한상흠85 △한성섭68 △한영철74
△한정빈63 △한철종55 △한덕훈78
△홍남종88 △홍성범56 △홍성일54
△홍원표48 △홍훈기00 △홍운태02
△황인준95 △황인호56

◆농대 △강경원52 △강광희57
△강아영00 △강정일64 △강희완64
△고만기77 △공민영05 △곽은주97
△금방용85 △기상서84 △김관선58
△김대환81 △김동윤48 △김두만52
△김문수54 △김병문69 △김봉수50
△김상철48 △김영상58 △김영택55
△김용찬57 △김응겸57 △김응년65
△김정기56 △김정화60 △김종천53
△김준평48 △김지범84 △김진수70
△김진웅60 △김진철51 △김철영46
△김태희57 △김택구63 △김학진88
△김현수55 △김현주03 △노규식76
△노홍섭53 △목진만02 △민경복81
△민영준48 △민원동65 △민태혁62
△박규택63 △박남종54 △박선언01
△박숙규48 △박양문55 △박영선55
△박용길53 △박재복70 △박재욱59
△박종대76 △방수자62 △배대환48
△백선희02 △백승근83 △백유현55
△변양석59 △변영숙70 △변종훈54
△서대원05 △서정겸67 △설권석54
△성용훈50 △성제중88 △손필상77
△송기덕55 △송영달55 △송종익55
△송춘종55 △신상혁56 △신서균58
△신언근54 △신일선58 △신종복54
△심의구50 △안상근81 △양동섭90
△양두석51 △양범산55 △양석홍55
△양시원02 △염익환78 △오민영51
△오세훈58 △오윤진56 △오종용60
△오홍석50 △오희정57 △우상호59
△우정식53 △유기성56 △유기형53
△유병후73 △유세현79 △유신상56
△유지성59 △유철호64 △윤인화55
△이경용53 △이관희55 △이덕립58
△이두환75 △이명남63 △이민재57
△이민혜05 △이범일61 △이병전55
△이상직56 △이수욱55 △이승찬65
△이영문52 △이영섭06 △이원훈99
△이원희50 △이인형56 △이재성02
△이종록49 △이종석65 △이주효99
△이중기55 △이창구66 △이춘녕36
△이태영54 △이태윤03 △이현우51
△이형구61 △이형주77 △이형주81
△이홍복56 △임병구60 △임용재67
△임장희89 △전석수62 △전종갑72
△정관모54 △정동성57 △정민현55
△정세진70 △정승모50 △정승우02
△정해영66 △조범호58 △조병진61
△조수경72 △주봉철78 △차영준51
△최광환06 △최무재53 △최병영75

△최재복⁵⁴ △최재원⁰² △하현팔⁶⁸
△한광희⁵⁵ △한기문⁹⁴ △한상익⁵⁷
△한석현⁵² △한성식⁵⁸ △한익상⁶¹
△한정수⁵¹ △한태수⁶⁵ △한해룡⁵⁵
△허은철⁹⁰ △현재선⁴⁴ △현호연⁵³
△홍갑선⁵⁴ △홍석인⁵⁷ △홍철기⁹⁷
△홍태균⁰⁷ △황석중⁵⁸ △황용진⁵⁶
◆문리대 △강두식⁴⁷ △강석명⁵⁶
△강신성⁵⁵ △강영남⁴⁵ △곽종흠⁶⁴
△구자흥⁶³ △기우탁⁵⁷ △김 욱⁶⁹
△김계란⁵² △김동일⁵⁸ △김동진⁶²
△김상욱⁶¹ △김선리⁶⁴ △김성중⁶¹
△김세중⁶⁴ △김수용⁶⁴ △김수학⁵³
△김영성⁶² △김용성⁴⁶ △김용웅⁶⁴
△김유석⁵⁵ △김주현⁶³ △김중하⁵⁷
△김진석⁵⁹ △김철수⁷² △김형면⁶⁶
△김형일⁵⁴ △김홍철⁵³ △나학진⁴⁸
△도태균⁶³ △문동성⁶⁹ △문무홍⁶⁷
△문영순⁵¹ △박상우⁵⁸ △박성철⁴⁸
△박재길⁷¹ △박재만⁵⁴ △박찬범⁶²
△박태룡⁵⁶ △박택규⁵⁵ △박희봉⁴⁸
△방재환⁶⁶ △배인하⁵⁹ △배정룡⁵³
△변광수⁶⁵ △서광식⁵⁹ △서인수⁵⁰
△석명철⁶⁶ △성완희⁵⁷ △송권용⁵⁸
△송연달⁶⁷ △송인찬⁵⁹ △신영균⁴⁷
△신표근⁷⁵ △심갑섭⁶⁰ △심사수⁵⁴
△심상결⁵⁸ △심수보⁶² △안남수⁵⁴
△안사균⁴⁷ △안석주⁶¹ △양영수⁶⁷
△양정섭⁴⁷ △오근영⁵⁹ △오인환⁵⁵
△오현승⁶⁵ △온준철⁶⁴ △원용문⁶⁰
△윤수환⁶⁷ △윤영탁⁶⁰ △윤하정⁴⁷
△이강조⁵⁶ △이광열⁷¹ △이덕주⁶⁶
△이성재⁵⁹ △이연명⁵⁵ △이영남⁶⁵
△이재술⁵⁷ △이종인⁵⁴ △이춘기⁵⁴
△이충양⁶⁵ △이한국⁵¹ △이해정⁴⁸
△임선재⁵² △임채욱⁵⁷ △장혜순⁵⁶
△전석홍⁵⁴ △전성철⁶⁹ △전우순⁴⁷
△전종현⁵⁵ △정관철⁵⁹ △정봉택⁵⁰
△정서구⁶⁵ △정영의⁵⁵ △정재석⁵²
△정지식⁶¹ △정철현⁵⁵ △정태훈⁵³
△정한택⁴⁶ △정해일⁵⁸ △조 흥⁶⁶
△조성균⁵³ △조성술⁵³ △조용주⁶⁷
△조환익⁶⁹ △주섭일⁵⁷ △차상철⁶⁵
△채기원⁵³ △최 진⁵⁶ △최 흥⁶⁶
△최규봉⁵³ △최연균⁶⁷ △최연대⁵³
△최연상⁵⁶ △최영길⁵⁸ △하인경⁶⁶
△한박무⁶⁶ △한상복⁵⁹ △허두표⁶⁰
△홍승국⁴⁶ △홍승표⁵⁹ △황원섭⁶⁴

◆미대 △김경숙⁶³ △김병욱⁴⁸
△김익수⁵⁸ △박연도⁵⁶ △박정기⁶⁴
△박종규⁶⁹ △배경희⁰² △성낙인⁴⁶
△신현경⁷⁹ △유영일⁸³ △윤영출⁸²
△윤옥진⁶⁴ △이만익⁵⁷ △이상희⁶⁰
△이예린⁰⁵ △이주현⁹⁸ △이화영⁵²
△이혜원⁷⁷ △정상원⁵⁸ △조 윤⁶³
△조귀현⁶¹ △조재구⁶⁰ △천진희⁷⁶
△한연호⁷⁷ △함영희⁷⁷ △홍경희⁶⁶
△홍순무⁵⁴
◆법대 △강인현⁵⁶ △강진성⁵⁵
△고명윤⁵⁴ △고재화⁶² △곽병진⁵¹
△곽상민⁹⁸ △곽회준⁵⁸ △구자순⁵³
△구충희⁴⁸ △김 환⁸¹ △김광현⁵⁴
△김국진⁶⁰ △김규연⁶¹ △김근조⁶⁰
△김기경⁸⁵ △김기동⁷⁵ △김동익⁵³
△김득환⁷⁹ △김민정⁰³ △김병구⁸⁴
△김복지⁴⁸ △김상구⁵⁵ △김상욱⁶⁹
△김상태⁶⁶ △김석재⁸⁸ △김선규⁵⁵
△김선병⁸¹ △김선중⁷⁰ △김성민⁵⁵
△김성엽⁸³ △김소연⁰⁴ △김순평⁸¹
△김영균⁵⁷ △김영삼⁶¹ △김영섭⁶⁶
△김윤택⁵⁰ △김의환⁸¹ △김재규⁵⁷

△김재상⁸³ △김재호⁸¹ △김정일⁹⁷
△김종곤⁶⁹ △김종호⁸⁰ △김준섭⁶¹
△김진병⁸⁵ △김찬동⁵⁰ △김창근⁵¹
△김태병⁸⁵ △김태성⁶³ △김해산⁵⁷
△김현서⁰² △나경식⁵⁸ △노수환⁸⁵
△노승행⁵⁸ △노창호⁵⁴ △라종훈⁶⁴
△류진열⁷² △문병호⁶⁶ △박 민⁹⁶
△박병규⁵⁵ △박상우⁷⁵ △박성달⁵⁶
△박성민⁰² △박세철⁵¹ △박용승⁷²
△박우동⁵³ △박장우⁶⁶ △박천서⁵⁶
△박형관⁸⁵ △반성우⁵³ △배화승⁶⁰
△백 린⁵⁹ △백덕열⁶⁷ △백보윤⁶¹
△백세웅⁶⁴ △백영철⁶⁸ △변은석⁸⁹
△사부성⁶¹ △서동희⁸⁰ △서용은⁵³
△서현진⁵⁷ △석성환⁵⁴ △성봉경⁷⁸
△손종대⁶⁶ △손지현⁹⁵ △손태호⁷⁶
△송경호⁹⁰ △송상규⁸⁴ △송평근⁸⁴
△신성오⁶⁰ △신용욱⁵⁷ △신창동⁴⁷
△신현욱⁶⁶ △심상명⁶⁰ △심한준⁵⁹
△안보영⁶⁸ △양승상⁵⁶ △양승주⁶⁷
△오정돈⁷⁹ △오전석⁷⁶ △원은섭⁶³
△유병한⁷⁷ △유재성⁵⁹ △이 협⁶³
△이강명⁶⁴ △이관형⁵⁷ △이권형⁰⁰
△이대영⁵⁸ △이대영⁶⁷ △이민관⁷²
△이범재⁵⁸ △이석웅⁷⁸ △이성규⁵²
△이성재⁴⁸ △이승진⁸³ △이승환⁵⁵
△이영의⁵⁹ △이용범⁵⁸ △이용우⁹²
△이우철⁶⁷ △이윤구⁹⁹ △이응한⁴⁷
△이인호⁵⁴ △이재우⁸⁸ △이정식⁷⁸
△이제재⁴⁷ △이종환⁵⁹ △이춘삼⁶⁷
△이춘식⁵² △이태희⁵⁸ △이현수⁹²
△이형섭⁹⁴ △이형진⁸¹ △임안식⁷³
△임종선⁶¹ △장동완⁶⁴ △전수철⁶³
△전용희⁸¹ △정 철⁵⁹ △정만조⁵⁵
△정승연⁹⁵ △정용상⁷⁴ △정의식⁸³
△정의식⁸³ △정종현⁶⁰ △정지혜⁰⁴
△정진우⁴⁸ △정철승⁸⁹ △정태용⁹⁵
△정호은⁰¹ △조봉균⁵⁸ △조주순⁶¹
△조준연⁸⁵ △조지만⁹⁰ △조현국⁸⁰
△주용완⁸⁹ △진동수⁶⁷ △차유경⁷³
△천해성⁸³ △최강섭⁷⁸ △최경자⁰¹
△최기선⁶⁴ △최명선⁵⁹ △최상원⁸²
△최영룡⁷⁸ △최유덕⁹⁶ △한상근⁰²
△한상술⁵⁸ △한연수⁹⁵ △한용기⁶²
△한주상⁶³ △홍상완⁸⁰ △홍성필⁸⁹
△황도연⁵² △황선무⁵⁸ △황성재⁷²
△황인구⁰⁰ △황지운⁰³ △황찬홍⁶⁵

◆사대 △강민경⁰³ △강양아⁸⁵
△강양희⁵⁷ △강철인⁶⁶ △강현재⁷²
△고무송⁶⁵ △고준식⁵¹ △구본안⁵⁹
△구사용⁵¹ △권나영⁰³ △김광준⁶⁷
△김길중⁴⁸ △김대용⁰⁰ △김동주⁸⁶
△김병수⁵⁹ △김보은⁰¹ △김봉호⁶⁸
△김상욱⁴⁷ △김성용⁵⁹ △김성호⁷⁰
△김소혜⁵⁴ △김소리⁰⁶ △김소연⁸⁵
△김순신⁵¹ △김원복⁷⁶ △김용복⁵⁷
△김용식⁸⁰ △김용일⁵⁹ △김인숙⁵⁸
△김재성⁷⁹ △김재은⁵⁰ △김점술⁸²
△김중우⁵⁴ △김주환⁶⁴ △김준엽⁰²
△김준호⁵⁰ △김창호⁶⁹ △김학찬⁶²
△김혜우⁶⁴ △김화인⁰⁴ △김희분⁵⁰
△나동진⁶⁶ △나민주⁸⁵ △남규욱⁴³
△남기경⁵⁸ △남기종⁵⁴ △남한식⁵¹
△남한식⁵¹ △노광동⁰² △민용기⁵²
△민청욱⁴¹ △민혜식⁵² △박강진⁸³
△박나영⁰³ △박상욱⁰² △박상필⁷⁶
△박인호⁵³ △박임희⁰⁵ △박정남⁵⁷
△박종현⁷⁰ △박찬주⁰² △박현수⁷⁶
△박희동⁷⁵ △배영철⁷⁹ △변영희⁶⁶
△변재호⁵⁵ △변희준⁵⁸ △봉정모⁷²
△석경징⁶⁰ △설동균⁶⁸ △성하경⁵⁶

△손가은⁰³ △손종극⁵⁵ △송재숙⁷¹
△승용기⁶⁹ △신문섭⁶⁰ △신상철⁵⁵
△신승기⁸³ △신일용⁷⁸ △신태우⁵⁸
△안영숙⁵² △양흥룡⁷¹ △엄영진⁰²
△오갑균⁵⁸ △오기세⁷⁴ △오수량⁶²
△우인섭⁴⁷ △유희임⁶⁸ △윤혁준⁰⁴
△이계숙⁴⁵ △이길오⁷³ △이동욱⁶⁹
△이만형⁶² △이상교⁶¹ △이상석⁵⁹
△이석주⁶⁰ △이성규⁵⁷ △이성근⁷⁶
△이성현⁵⁶ △이수임⁵⁹ △이순여³⁶
△이승립⁶⁶ △이영호⁵⁰ △이옥순⁵⁴
△이왕근⁶⁶ △이용현⁵³ △이용훈⁵⁸
△이우복⁷⁸ △이유경⁶⁹ △이윤희⁰⁵
△이장호⁵⁵ △이재근⁴³ △이재만⁵²
△이창호⁷¹ △이화성⁸¹ △임상순⁶⁰
△장대운⁵⁴ △장미숙⁸⁴ △장병덕⁵³
△장정현⁷⁸ △장제홍⁵⁵ △전기채⁵¹
△전명수⁵¹ △전수남⁵⁹ △전팔근⁴⁷
△정기숙⁵⁵ △정부길⁵⁹ △정운영⁷⁶
△정의상⁵⁵ △정태호⁷⁴ △정희섭⁷⁶
△조주현⁰⁴ △조희식⁵⁴ △차도완⁵⁵
△최계숙⁵² △최덕원⁵⁴ △최병록⁴⁹
△최병호⁵⁷ △최승호⁷⁵ △최용섭⁵⁴
△최원규⁵⁸ △최원정⁰⁴ △최익규⁵⁰
△최정립⁶² △최정숙⁴⁴ △최정현⁶⁴
△최종학⁸⁰ △하준호⁰¹ △허경욱⁵²
△허인철⁰³ △홍성일⁷³ △홍은경⁵⁴
△홍종봉⁵⁴ △황적륜⁵⁴

◆상대 △강경수⁵⁵ △권경현⁶⁸
△권기봉⁵⁴ △권혁조⁵³ △김기학⁵⁵
△김민현⁵² △김봉한⁴⁴ △김상경⁶¹

△김선길⁴⁵ △김성주⁵⁵ △김시왕⁵⁷
△김영섭⁶⁶ △김용수⁵⁶ △김윤일⁶⁶
△김은수⁵⁰ △김인기⁵² △김정태⁶⁶
△김정현⁵⁴ △김정환⁶⁰ △김종철⁶⁸
△김종희⁶⁵ △김주복⁵⁷ △김주형⁷⁴
△김주호⁵⁰ △김진주⁶⁰ △김창수⁶³
△김형주⁵¹ △나웅배⁵³ △민병훈⁵⁶
△박기환⁶¹ △박동순⁵⁷ △박상호⁶³
△박순태⁵⁶ △배선홍⁴⁹ △배종섭⁵⁸
△서규상⁵³ △서병태⁶³ △손경수⁵⁶
△신경균⁴⁵ △신광규⁵⁵ △신기범⁶¹
△신해철⁶⁹ △심병구⁴⁹ △심재식⁵⁸
△양재욱⁵³ △양해성⁶⁸ △엄치섭⁵³
△염건호⁶⁶ △오맹선⁵³ △오세환⁶⁸
△오영욱⁴⁵ △우일균⁵⁰ △원한영⁵⁶
△유명희⁵⁷ △유병무⁶⁴ △유재윤⁶⁸
△유춘식⁵¹ △윤정희⁵⁴ △윤하균⁵⁵
△이건재⁵² △이경모⁵² △이길호⁵⁵
△이병국⁵² △이석순⁵⁴ △이성희⁷⁰
△이영상⁵¹ △이영일⁶⁰ △이은방⁵⁷
△이재등⁵⁷ △이재환⁵⁶ △이정권⁵⁷
△이종수⁶⁴ △이종연⁵² △이창희⁵⁵
△인수환⁵⁴ △장현수⁶² △전창기⁵⁷
△정경완⁵⁵ △정덕화⁵⁶ △정연덕⁵⁰
△정점식⁵⁸ △정종식⁶⁹ △조문제⁵⁹
△조성일⁶² △조현문⁵⁸ △조흠원⁶⁴
△진윤구⁶⁸ △진창갑⁵⁴ △최대환⁶⁰
△최윤식⁵⁵ △최재혁⁴⁹ △최준철⁵⁹
△최하식⁶⁰ △한영국⁵⁰ △한정기⁶⁹
△한정복⁶⁶ △한준석⁴⁹ △허재경⁵⁶
△허재원⁵⁶ △홍구희⁵⁷ △황보연⁵⁵

◆생활대 △강은영⁸⁴ △권정현⁰³
△김경애⁷⁰ △김덕중⁰¹ △김소예⁰³
△김윤정⁹³ △김효순⁸² △박문학⁶⁰
△안영희⁵⁷ △오경숙⁸² △이창배⁵⁷
△전영숙⁷⁸ △정광호⁵⁷ △조동완⁸¹
△조영애⁵⁷ △조혜자⁶⁰ △채미희⁷⁷
◆수의대 △강석주⁵⁵ △고성욱⁵⁷
△곽기종⁵⁵ △권오경⁷¹ △김경휘⁵⁶
△김길성⁶⁰ △김배원⁶⁰ △김선일⁶³
△김재하⁴⁹ △김재하⁵² △김정훈⁶²
△김주성⁵⁴ △김진영⁶⁰ △김협수⁸¹
△김휘석⁷² △남궁선⁵⁷ △박현기⁵⁸
△백영환⁵⁶ △안수경⁰⁰ △오남진⁶⁷
△오영유⁵³ △우창현⁷⁵ △유승창⁶³
△윤태길⁵⁸ △이영주⁸³ △이호원⁶⁶
△임정수⁶⁴ △정용면⁵³ △제병천⁰⁴
△조수식⁵² △최광수⁵⁸ △최윤주⁰⁰
△최찬영⁶⁶ △한삼성⁸⁴ △한인식⁶⁴
△허정희⁶⁰ △홍순국⁵⁴ △황병주⁵⁷
△황인학⁴⁹

◆약대 △강규상⁵⁶ △강순철⁵⁹
△국진섭⁵⁷ △김지혜⁰¹ △김경욱⁶⁴
△김규형⁵³ △김신일⁶⁰ △김정숙⁶⁹
△김지영⁹⁹ △김진형⁸⁸ △김태윤⁵⁵
△김혜자⁵⁵ △김홍중⁵³ △김희중⁵⁹
△문창규⁵⁹ △박경립⁷⁰ △박동순⁵⁷
△박대선⁰⁴ △배옥남⁹⁵ △백희정⁰⁷
△변은자⁵¹ △변정수⁹⁶ △서성수⁵³
△손선일⁵⁹ △송나래⁰⁵ △송희성⁶⁰
△신필재⁵⁵ △심은숙⁵¹ △윤용상⁷⁸
△윤은정⁰³ △윤홍중⁵⁵ △이갑희⁵³

△이계준64 △이만재56 △이문형47
△이상준61 △이상호66 △이성태60
△이원재53 △이유경00 △이재은55
△이흥래52 △임경욱53 △정근배61
△정동원53 △정왕윤54 △정종경81
△정현수51 △조미정87 △조중현68
△주상훈91 △천길순52 △추민정05
△허진종61 △홍성만70 △홍순억58
△황정혜01
◆음대 △강상미98 △권혁남58
△김경화73 △김금수76 △김민경06
△김민식99 △김민자66 △김석란80
△김성희75 △김소연94 △김정희04
△김현정02 △문영애65 △문혜신94
△오미혜71 △우지은06 △유새롬04
△윤제상78 △이명희70 △이선영86
△이재경73 △이지연93 △장창환58
△전신주67 △정은희87 △조경주75
△조하나03 △한애화84 △한혜자61
△홍은지06 △황영금49 △황해영80
◆의대 △강내열56 △강성섭66
△강정후76 △강진국57 △강흥식71
△계수덕45 △권선주94 △김내준49
△김득구50 △김병엽50 △김세엽70
△김소연74 △김용진69 △김우중78
△김인호71 △김종선62 △김진국52
△김창기89 △김창석85 △김현정03
△남광현58 △문상은80 △문홍세54
△박남진71 △박순일51 △박신근61
△박재현86 △박한철53 △방덕환53
△서정후50 △서창석79 △서현이04

△신명희56 △신성우47 △신용찬54
△안 권95 △오세윤59 △오정성67
△유 준41 △유정주05 △유종근71
△윤용구66 △이경욱58 △이봉재72
△이봉화75 △이언복52 △이인영51
△이종석79 △이준걸88 △이중표53
△이지혜01 △이창원85 △이해영68
△이호성70 △임대정91 △임재인96
△정 석04 △정범영94 △정상일88
△진정욱93 △차명진01 △차왈보53
△최덕영58 △최윤식63 △추아정04
△한기준52 △한승석01 △한예택50
△한정규98 △한종수02 △현응설45
△홍진명06 △황효섭58
◆치대 △강신구65 △강인희77
△강정규58 △강호경53 △권오균71
△김경남72 △김기수78 △김능원63
△김문기66 △김병석79 △김성래53
△김세일77 △김승현98 △김영권55
△김용철63 △김유진68 △김윤이73
△김장현77 △김종화99 △김주관66
△김창우86 △김화봉77 △문정광61
△문창남58 △박동귀55 △박세운86
△박인욱83 △박종만69 △백승진75
△서상주56 △서정일99 △손재도90
△신문혁63 △오기환53 △우형식59
△이강운88 △이경모76 △이기훈70
△이봉호86 △이상봉53 △이상용82
△이성호75 △이승연61 △이영애58
△이용덕81 △이원철63 △이재명63
△이정룡70 △이태영67 △임성균59

△정관희61 △정윤석73 △정인환60
△조상태83 △조창홍46 △최병식58
△팽준영03 △한성희92 △허정규62
◆대학원 △권혁대84 △김상호81
△김석찬82 △김우식66 △김우태86
△김철수73 △박미경93 △박용종82
△안영철79 △안혜경00 △우은주78
△이수형78 △이용걸75 △정목동81
△정성렬85 △진선주62 △채종근91
△최병희63 △한상서95 △황성주08
△황재환92
◆경대원 △고창석71 △김일란69
△임인규88 △조형규67 △황길태66
◆교대원 △김기태71 △이상길70
◆국대원 △엄혜원05
◆보대원 △김삼권84 △김영태98
△김홍은76 △박예나07 △박전봉72
△박형언87 △송경석98 △엄재우97
△여현태65 △윤희선98 △이수형01
△최용어67 △한경희03 △허인남80
◆사대원 △김영준70
◆신대원 △윤임술69 △이준우73
◆행대원 △강훈철80 △김경섭73
△김상국72 △신호현84 △심윤수81
△양인모71 △오태영85 △이성기63
△이수태84 △인호석02 △임동완00
△정병철77 △최재열80
◆환대원 △김인근84 △유철상77
△황보영춘83
◆AMP △강진경65 △강희조26
△고상환9 △권광태60 △권국주38

△김강정48 △김경환31 △김기열30
△김선홍14 △김성환25 △김영만65
△김중성39 △남정후18 △노선호24
△노연웅48 △류동현57 △문승용4
△민경서48 △박 석25 △박갑용27
△박성규15 △박종구21 △박종철54
△박찬영61 △박철구61 △변정수40
△송권영65 △송창섭64 △신말엽34
△신문범23 △신지윤66 △심인홍46
△안병구67 △안영복1 △양창규50
△염정태40 △우정욱37 △윤성민13
△윤준식65 △은민수67 △이강호60
△이병성2 △이상갑25 △이성연4
△이순세22 △이승휘49 △이영주5
△이원호43 △이장한37 △이중삼40
△이체욱54 △이춘식56 △이춘호46
△이태섭5 △이현국13 △장호균16
△전수진53 △정원민13 △정재문5
△정재성7 △정형택6 △정홍기67
△조문규51 △조용연21 △조은상45
△진성섭10 △진옥윤32 △차정의44
△채갑병53 △전병섭10 △최낙철3
△최병택6 △최용묵53 △한형수47
△홍기호47 △홍연우54 △황문성66
△황민하67 △황의영59
◆AIP △고희수25 △곽문연8
△김경수39 △김경원14 △김계동36
△김선경41 △김윤필32 △김주평28
△김진수29 △김형일41 △박병철41
△박영기29 △박인서12 △박종춘41
△신현필13 △오 현5 △오동식41
△유길상9 △윤백중4 △이근모1
△이문기16 △이병희5 △이상길41
△이현구35 △이현희15 △조동귀33
△최길순21 △최순규36 △최용식26
△최원태26 △최일문35 △최평욱7
◆ACAD △김도윤67 △김부근31
△김영수69 △김영호35 △김인중54
△김정윤69 △김행복27 △김호연11
△민병운56 △박용식61 △손정식44
△신건식37 △신태희32 △안인순55
△오길수69 △오명철61 △오복용51
△오주환69 △유갑중24 △유병국30
△유재만19 △이강우69 △이경환64
△이범희68 △이영희67 △이은홍48
△이종성33 △이필우33 △장준경23
△전해성33 △정민근62 △조병창31
△진인권28 △최정환69 △최창권66
△홍종욱62
◆ABP △국재환15 △김기주5
△마호웅32 △박형규20 △배영운31
△송기덕23 △송영규9 △송윤진20
△심형보16 △정석호19 △최원우22
◆SGS △안영대22 △우의제12
△원성연20 △윤 권4 △이민관18
△이인우23 △이재홍19 △이항구8
△임득현6 △임태모10 △정해순3
△조영원4 △조익희20 △최병진20
△최상석2 △최상현20 △홍문권23
◆CHCN △박은수7
◆CPCN △승지순3
◆APC △안병철5 △양화승8
△이범희3 △이영세4 △이우진4
△최용상3 △홍기만3
◆HPM △권오성23 △권차남5
△김병수9 △김성훈21 △김현수2
△김황준5 △박태화20 △어준선5
△이재부23 △이정현9 △이태선21
△전명덕1 △정동윤9 △조정식23
△최승용9 △최종환10 △최진호19
△하수성22 △홍의표9

◆AMPP △고영수10 △신석훈1
△양은희7 △이영석5 △이종만5
△전동우10 △정성훈10 △조현택10
△최상규10 △최익현2 △홍 근7
◆AIC △강경원23 △곽복동28
△김동현25 △김백순27 △남호연4
△박태규5 △박형상15 △배용철20
△신양인24 △심장섭27 △우희근14
△이재학27 △이종훈23 △정하환22
△최재언28
◆AFB △권관주8 △길경일6
△길신영9 △김병희9 △김용오9
△김유순9 △김임수9 △김재명7
△김해숙9 △김홍철9 △노완영9
△문현수9 △박광명8 △반태원9
△우용석9 △유희식9 △이광연9
△정금영9 △지홍찬9 △허우행9
△황철구9
◆AMPFRI △강영학23 △강태호22
△권 순4 △김복엽23 △김정주2
△류영진22 △박용철4 △매병섭9
△신도범7 △안상교10 △양동수6
△윤병기6 △이광순6 △이규태14
△이상국18 △이열종1 △이춘희9
△지일산22 △최윤경24 △현태형13
△호재국2 △홍서현6
◆ACMP △고주환6 △김기식6
△김락중6 △김범용6 △김승택6
△김희훈6 △김희현6 △나의순6
△양남용6 △이정현5 △이한성5
△장진근4 △정일주1 △정종균2
△한남희5 △형병택6 △황진성6
◆FIP △남광수6 △박지관1
△신종구4 △한상주6
◆GLP △강미모16 △곽기형17
△금상연19 △김동준19 △김영철11
△김용태17 △김우관14 △김중대20
△김진배14 △김태화11 △김형중17
△민형기20 △박인성20 △박정수14
△박희수15 △송병원20 △신태환20
△오범석20 △유영은19 △유운산11
△이동향9 △이상식17 △이석형12
△이용문17 △임현수15 △정동훈20
△최만중12 △최용근20 △최재영19
◆ALP △고형봉10 △김광주2
△김요성8 △김홍태10 △백진현7
△변 강2 △손용근6 △송정규11
△송종률11 △안종만3 △우동영5
△윤병무11 △이국동6 △이상표11
△이용우11 △장석산9 △정기환6
△정영조8
◆ANMP △변금순5 △최운규5
◆SPARC △남동환2 △문형철4
△박승식6 △윤상기1 △정재원5
△최평규4
◆AFP △안창주5 △장창덕5
△조영진5
◆ASP △박정원17 △성순경10
△안준근9 △염조일15 △오세일17
△이길형10 △이두호4 △이수화16
△이재덕4

분 담 금

◆인도네시아지부 5백달러

4 월 계 :	23,680,000원
평생회비 :	30,500,000원
입 회 비 :	170,000원
총 계 :	319,307,200원